

모잠비크 마추아(Mutswa)종족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모잠비크 이남바네(Inhambane)주 마싱가(Massinga)시와
후날로루(Funhalouro)군을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AFR(Africa Field Research) 2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AFR(Africa Field Research) 2기 훈련팀에서 2007년 7월 5일 ~ 25일까지 모잠비크 이남바네주 마싱가시와 후날로루군을 중심으로 마추아종족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팀은 이겨레(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05), 장혜영(언론정보문화학부 '05), 최새봄(산업디자인학부 '06), 서기준(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03), 조의(국제어문학부 '05), 김주영(글로벌리더십학부 '07), 황윤지(글로벌리더십학부 '07) 이상 7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현장 조사는 한국기아대책과 협력하여 고바 지역의 어린이 개발사업(Children Development Program)과 마추아족 조사를 하였다.

I. 조사설계

1. 조사의 필요성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에 위치한 국가이다.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500여 년간 받았고, 식민지배 이후 내전을 거치면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나라이다.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는 있지만 2005년 GDP는 1,389 달러에 불과하고, 224개 국가 중 158번째 GDP 순위에 있는 나라인 만큼 극빈국이다. 중고등학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모잠비크의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를 모잠비크에서 개최할 정도로 모잠비크에는 많은 에이즈 환자가 있다. . 2006년 UNAIDS의 자료에 의하면 180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지만 실제 보건소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 한 결과 공식 집계 보다 훨씬 더 많은 에이즈 환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말라리아 역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말라리아, 에이즈와 같은 병 이외에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조차 의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모잠비크에는 카톨릭, 기독교, 이슬람교, 전통종교 등 다양한 종교가 분포한다. 하지만 흔히 이단으로 알려진 교단들이 모잠비크 내 활동하는 기독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경을 갖고 있는 교인들의 수가 적어 성경을 공부하며 믿음을 성장시키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조상신을 믿는 전통종교가 혼합된 형태인 시오니즘 이단 기독교 이단의 교인이 약 400만 명이나 되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본 조사팀이 조사한 지역은 마추아족이 거주하는 마싱가 시와 후날로루 군이다. 마싱가 시는 마추아족이 거주하는 이남바네 주의 중심지이며 후날로루 군은 이남바네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군이다. 후날로루 군은 물이 부족하여 가뭄이 자주 들며, 기독교 전파 기간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전통종교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마추아족은 티송가족에서 분리된 종족으로 티송가족은 다시 룡가, 마추아, 티송가족으로 분류된다. 이 세 종족은 모잠비크 남쪽의 가자, 이남바네, 마푸토주의 전체 인구 약 5,291,000명 중 약 3,663,000명²으로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마추아족을 이해함으로써 모잠비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마추아족과 모잠비크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수도 마푸토나 국가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어서 사전 조사를 통해 마추아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아 조사를

² <http://www.joshuaproject.net>

통해 일반적인 자료와 그들의 현실과 필요를 알아 복음의 접촉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조사의 목적

- (1) 마추아 종족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등의 종합적 조사를 통한 마추아 종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 실체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 (2) 현장 조사를 통해 마추아 종족의 필요를 알고 복음의 접촉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 (3) 조사된 지역과 종족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려 중보 기도자를 세우고 중보하도록 하며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에 알려 선교사를 동원하도록 한다.

3. 조사지역

모잠비크 이남바네(Inhambane) 주 내의 마싱가(Massinga) 시와 후날로루(Funhalouro) 군을 조사하였다. 위 지역은 국제 공항이 있는 수도 마푸토(Maputo)에서 차로 이동할 시 약 6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다. 마싱가 시는 마추아족이 사는 이남바네의 중심지 도시로 가장 발전된 곳이며 후날로루 군은 이남바네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가장 기근이 심한 곳이다. 이 두 곳을 조사하여 비교하기 위해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다.

4. 조사대상

모잠비크 이남바네주 마싱가시와 후날로루군의 마추아(Mutswa)족

5. 조사기간: 2007년 07월 05일 ~ 2007년 07월 25일

6. 조사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AFR 훈련생 7명

	이름	학부 (학년)	역 할
1	이겨레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05)	디렉터, 예배부원
2	서기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03)	미디어부장
3	김주영	글로벌리더십학부 (07)	예배부장
4	황윤지	글로벌리더십학부 (07)	총무부장
5	조의	국제어문학부 (05)	문서자료부장
6	장혜영	언론정보문화학부 (05)	미디어부원
7	최새봄	산업디자인학부 (06)	문서자료부원

(2) 통역자

	이름	소속	역 할
1	이상범	한국 기아대책	통역 (현지 선교사)
2	김성식	한국 기아대책	현지 동행 (기아대책 간사)
3	프랜시스코	Tirano Center(신학대학)	현지 가이드, 통역 (학생)
4	코사	한국 선교회	통역 (마푸토지역 담임목사)

7. 조사방법

(1) 사전 조사

① 인터넷 조사: Joshuaproject.net, www.wikipedia.com, www.cia.gov
위 사이트를 활용하여 모잠비크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였다. 하지만 사전 조사는 마추아 종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고 모잠비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다.

(2) 현장 조사

1) 관찰 조사

- ① 마싱가 시 - 물 탱크 시설 방문, 모잠비크 침례 교회 방문, 전통 춤 관람, 교육청 방문, 추장집 방문
- ② 후날로루 군 -군청 방문, 보건소 방문, 교육청 방문, 추장집 방문, 마을, 시장 관찰 조사, 모잠비크 침례 교회 건축 현장 방문, 중, 고등학교 건축 현장 방문

2) 인터뷰 조사

- ① 전문가 인터뷰: 모잠비크 종교 청장, 마싱가 시 종교 청장, 마싱가 시 교육감, 후날로루 군 군수, 후날로루 군 담당 당 총서기, 후날로루 군 보건소 책임자, 후날로루 군 교육감
- ② 일반인 인터뷰: 마싱가 시 주민 리더, 마싱가 시 지역 추장, 후날로루 군 추장, 후날로루 군 하나님 성회 교단 지도자

8. 조사의 성과와 한계점

본 조사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마추아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보고서는 충분한 인터뷰를 통해 현지에서 얻은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보고서는 문헌조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보다는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정보로 대부분 구성되었다. 특히 종교청장, 교육감, 당 총서기, 군수, 추장, 종교 지도자, 보건소 책임자 등 각 분야의 지도자급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추아족의 현실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마추아족에 대한 관찰조사와 인터뷰 조사가 함께 적절히 이루어졌다.

또한 본 조사팀은 모잠비크의 현지인 집에서 6일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리서치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현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고 그들의 생활에 대해 좀 더 밀접한 조사가 가능하였다.

잘 짜인 일정 가운데 리서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리서치 시간이 충분했으며, 획득한 정보도 풍부하다. 현장에서 얻은 정보는 사전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의 내용과 비교, 대조를 통해 기존 자료들보다 정확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포르투갈어와 시와어를 쓰는 마추아족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함께 동행한 통역자가 포르투갈어와 한국어를 통역해주었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 전문가와의 인터뷰는 많았지만 일반인들과의 인터뷰가 부족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관찰 조사만 가능하였고 그들의 생각이나 신념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II. 들어가는 말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최빈국, 17년간의 내전으로 인해 황폐화된 국가, 문란한 성 문화로 인한 AIDS의 급속한 확산, 가뭄과 홍수로 인한 자연 재해, 정부 관리자들의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의 악조건 속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물질적, 사회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황 또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모잠비크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 되어있다. 표면적으로는 복음이 많이 전파 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전통 신앙과 기독교가 섞여 복음의 순수성을 잃은 채 온갖 미신과 부적, 제사를 들이는 이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8%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는 이러한 혼합 종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브라질의 대형 이단 교파를 비롯하여 미국의 물몬교, 여호와 증인, 사도 교회 등의 이단 교단들이 전통적인 복음주의에 입각한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본 리서치 팀이 조사한 지역은 모잠비크 남동부에 위치한 마싱가 시와 후날로루 군이다. 이 지역에 대한 관찰 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마추아족의 생활상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개의 지역을 조사함으로써 이남바네에 주 내에서 도시(마싱가 시)와 농촌(후날로루 군)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고, 마추아 족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종교 분야에 있어서도 깊이 있는 리서치가 이루어 졌다. 모잠비크의 지역을 종교적 특징에 따라 나누어 보면 남부는 기독교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북부에서는 이슬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카톨릭은 오랜 역사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있었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본 리서치 팀이 조사한 곳은 모잠비크 남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슬람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전통 신앙과 기독교가 혼합되어 독특한 교리를 가진 수 많은 독립교회가 있었다. 이러한 독립 교회가 선교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리서치 팀은 지역 주민부터 정치인까지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을 인터뷰 함으로써 거시적인 측면에서 모잠비크 전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마싱가 시와 후날로루 군에 대해 조사해 마추아 족의 실질적인 현실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크게는 이 나라의 행정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서부터 작게는 마을의 작은 필요를 알고 그 대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보고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묶여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한다. 또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나와는 상관 없는 것이 아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뉘야 것임을 자각하며 그들을 도울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III. 모잠비크 나라개관 및 종족

1. 일반개요

(1) 모잠비크 나라개관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위치하며 모잠비크 해협을 면하고 있는 나라이다. 북쪽으로는 탄자니아와 만나고 서쪽은 북으로부터 니아사호(말라위호)를 사이에 두고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남쪽은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정식명칭은 ‘모잠비크 공화국 (Republic of Mozambique)’ 이다.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수도는 마푸토(Maputo)로 마푸토의 인구는 1,691,000명 이며 계속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GDP는 270억불 (2005)³이며, 최근 성장률은 7~13% 로 현재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모잠비크 총면적은 799,380km² 한반도의 약 3.6배이다. 종교 현황은 카톨릭 23.8%, 이슬람 17.8%, 시오니즘 이단 기독교기독교 이단 17.5%(1997) 기타 17.8%이고. 공용어는 포르투갈어이며 가 부족의 언어도 존재한다.

〈그림 III-1모잠비크 위치 및 지형〉

(2) 정체성

1) 종족명: 마추아(Mutswa)

³ Wikipedia 위키백과에서 GDP(PPP) 2005년 값으로 전체 \$270억 1,300만 (100위)를 기록하고 일인당GDP는 \$1,389 (158위)이다.

2) 주요언어

마추아 족이 사용하는 언어는 시콰어(Xitswa)이고 그 이외에 상간어와 포르투갈어를 쓴다.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시콰어이지만 상간어로 상영하는 영화를 대부분 이해할 정도로 상간어로 의사소통 하는 데에 문제가 없고 포르투갈어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

3) 주요종교 : 시오니즘 이단 기독교(Zion Church)와 카톨릭(Catholic)

4) 특징

자신들의 언어로 이 종족의 이름은 마추아(Mutswa)이다. 외부에서는 영어의 영향으로 츠와족(Tswa)이라 불린다. 마추아족은 고유의 반투 종족으로부터 기원한 티송가족에서 분리된 종족으로 티송가족은 룡가, 마추아, 티송가족으로 분류되고 마추아족은 스스로 드지비(Dzivi), 흘렝웨(Hlengwe), 므한들라(Mhandla) 세 가지의 주요 그룹으로 다시 나눈다. 전통적으로 마추아족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해 왔다. 이들의 삶과 관습은 전통적으로 농경문화를 계속 유지해 왔으나 이남바네에 정착한 후 인도양을 끼고 살아가면서 어업에도 종사하기 시작했다. 또한 내륙에 살면서 사냥을 통해 고기를 얻는 것도 흔한 일이다. 19세기의 마지막 20년간 마추아족은 일자리를 찾아 남아공과 도시로 이주해 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전쟁과 기근의 문제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사람들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몇 천명의 마추아족 사람들이 전통적인 농경 문화의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추아족은 종종 티송가족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인터넷상의 정보 중 두 종족을 구분하는 선이 모호한 자료들이 있을 만큼 두 종족은 흡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룡가, 마추아, 티송가 세 종족은 모잠비크 남쪽의 가자, 이남바네, 마푸토주의 전체 인구 약 5,291,000명 중 약 3,663,000명⁴으로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본 조사팀이 조사한 모잠비크 남쪽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들은 큰 차이가 없었다. 500년간의 포르투갈의 식민지배시대와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마추아족의 통치자들은 그 시대의 법과 정치의 관리 아래에서 마추아족 사람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 버렸다. 근래의 도시화 인해 최근에 많은 마추아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많은 관습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종족과 약간의 언어의 차이만 보이고 있어 모잠비크 남쪽의 종족과 마추아족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⁵

⁴ <http://www.joshuaproject.net>

⁵ <http://cesa.imb.org/peoplegroups/Tswa.htm> 참고 하였다.

(3) 분포 및 인구

모잠비크의 행정구역은 10개의 주(Provincia)와 1개의 수도(Maputo)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는 국가 전체 20,905,585(2007)명⁶이고 지역별로 남쪽과 북쪽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인구 성장률은 약 1.8%이며 출산비율이 38.5%, 사망률 20.5%이다. 지역별로 모잠비크 전체 62부족이 살고 있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마쿠아족과 미전도 종족이 분포하는 지역이 남풀라와 카보델가도지역이다. 본 조사팀이 조사한 마추아족은 이남바네 주에 거주하는 종족으로 인구는 1,184,000명이며, 모잠비크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종족이다.

〈표 Ⅲ-1 지역별 인구수〉

지역 명	인구수
카보델가도 (CaboDelgado)	1,500,000명
가자(Gaza)	1,300,000명
이남바네(Inhambane)	1,300,000명
마니카(Manica)	1,200,000명
마푸토시(Maputo city)	1,691,000명
남풀라(Nampula)	3,400,000명
니아싸(Niassa)	900,000명
소팔라(Sofala)	1,500,000명
테테(Tete)	1,400,000명
잠베지아(Zambezia)	3,500,000명
마푸토(Maputo)	1,000,000명
합 계	18,791,000명



〈그림 Ⅲ-2 모잠비크 행정구역〉

⁶ CIA world fact 2007년 최근 자료로 아래 지역별 인구분포 자료(wikipedia 2002)와는 총 인구수에 차이가 있다. Wikipedia에 따르면 인구 밀도는 25명/km2(178위)에 해당한다.

(4) 위치 및 환경

모잠비크는 남부 저지와 북부 고지의 두 지형으로 크게 구별되며, 두 지역은 남동쪽으로 흐르는 잠베지 강에 의해 나뉜다. 남부지방은 빙가산(2,436m)이 있는 치모이우 고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저지해발 200m 이내이다. 북부는 좁은 해안지대만이 저지이며, 서쪽으로 가면서 해발 200m~600m의 내륙대지로 변하다가 산악지대(1500m~2450m)를 이루며 북서쪽의 말라위와 연결된다. 중부지방을 흐르는 잠베지 강은 배수역의 면적이 22만 5000km²가 넘는 이 나라의 대동맥이며, 최대 수력 전기 개발사업으로 중요한 강이다. 마추아족이 거주하는 이남바네 주는 모잠비크 평원지대로 바니네 국립공원이 위치하는 곳이다.

날씨는 열대해양성기후로써 크게 우기(11~3월)와 건기(4~10월)로 나뉘며, 1월평균기온은 저지대가 26~30℃, 고지대가 22~25℃, 7월평균기온은 저지대가 15~20℃, 고지대가 11~15℃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북서부 고지대 1,420mm에서 남동부 저지대 500~750mm에 이르며, 남쪽 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뭄이 들 때가 많다. 북에서 남쪽으로 열대성 식물과 사바나 식물이 펼쳐져 있고, 동물은 얼룩말, 물소, 코뿔소, 코끼리, 기린, 사자, 악어 등 종류가 다양하다. 천연자원으로는 석탄이 6억 톤 이상이 있고, 철광석, 탄탈라이트, 천연가스, 망간, 우라늄, 다이아몬드 등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본 조사팀이 있었던 이남바네 주 후날로루 군 지역은 모잠비크의 극심한 가뭄지역으로 2002년 이래로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스페인의 NGO단체에서 식수 공급을 위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5) 역사

모잠비크에는 약 2000 년 전 철기문화를 지닌 반투족이 모잠비크 해안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하면서 모잠비크 땅에 정착하였다. 14-15 세기 쇼나족에 의해 짐바브웨에서 모잠비크까지 이르는 대제국이 형성되었지만, 16 세기 포르투갈의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인도 무역의 중간 정착지와 노예상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포르투갈은 19세기까지 노예시장을 운영하면서 모잠비크 종족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모잠비크 내에 기독교와 포르투갈 문화를 보급하였다. 19세기 중반 무렵, 포르투갈 식민지배에 대항한 해방운동조직⁷이 결성되면서 무력투쟁과 식민지해방투쟁을 시작하였다. 1974년 포르투갈 본

⁷ 모잠비크 해방운동조직에 관련된 자료는 2. 정치 분야에서 상세히 다루어짐.

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후 모잠비크에는 ‘식민지 해방’ 을 방침으로 내세운 사회주의 정권이 등장하였고, 1975 년 6 월 25 일 모잠비크 인민공화국으로 정식 독립이 되었다. 독립 후 일당 독재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추진세력과 사회주의정권을 타도하는 민족 저항운동의 내전이 1980 년 말까지 일어난다. 1992 년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중재로 내전은 종식되고, 1994 년 민주적 선거를 통해 시사노(Chissano)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현재는 게부자(Armando Elmilio Guebuza)가 나라를 통치한다.

2. 정치분야⁸

(1) 개요

1) 특징

16세기에 포르투갈의 침략 이후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다. 포르투갈인들은 이남바네(Inhambane)를 거점으로 본격적인 식민지 통치를 하였고 이 곳을 첫 번째 수도로 지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년대까지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이 독립했으나, 포르투갈은 모잠비크를 비롯한 자국의 식민지에 대해 해외에 있는 지방정부(1951년 포르투갈의 하나의 주로 편입)로 규정하며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항하여 모잠비크는 1965년 ~1975년 까지 프렐리모(frelimol)⁹를 결성하고 독립전쟁을 하였다. 포르투갈 정부가 1974년4월 리스본에서 발생한 쿠데타로 인해 해외로 파병한 군을 철수함에 따라 모잠비크는 1975년6월25일에 독립을 성취하게 되었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도움을 받은 모잠비크는 마셀(Samora Moisés Machel)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웠으며 프렐리모의 일당제의 사회주의국가가 된다. 하지만 주변 국가의 정세는 자본주의 사상을 가진 백인들이 남아공과 로디지아(現 짐바브웨)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셀 대통령은 이러한 정세 속에 백인들로부터의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던 남아공의 ‘ANC’ 및 로디지아(現 짐바브웨)의 ‘ZANU’ 등의 무장단체를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남아공 및 로디지아 정부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독립운동 지도자인 자까마를 앞세운 모잠비크 반정부 무장투쟁단체인 레나모¹⁰를 지원함으로써 모잠비크는 내전을

⁸ 주잠바브웨대사관 2006년 9월 작성한 ‘모잠비크개황’ 참고

⁹ * 프렐리모(frelimol) : 모잠비크해방전선의 모잠비크의 독립운동 단체이다. 1975년 신생독립국 모잠비크의 집권당이 되었다. 프렐리모는 1962년 모잠비크의 망명인사들이 인접 탄자니아에서 조직했으며 포르투갈 식민통치의 타도를 목적으로 했다.

¹⁰ 모잠비크민족저항운동 (Resistência Nacional Moçambicana, (Renamo) 으로 정식 이름은 Mozambican National Resistance, 모잠비크 정권을 전복하려 했던 게릴라 조직. 이 조직은 백인 로디지아 정권의 전복을 꾀하는 흑인 게릴라에 대한 신생 모잠비크 인민공

겪게 된다.

남쪽에 주둔한 정부군(frelimol)과 북쪽에 주둔한 반군(renamo)의 내전으로 100만 명이 희생되었다. 1986년 마셀이 비행기 사고로 죽은 후 시사노(Joao Alberto Chissano)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1990년 11월 30일 신헌법¹¹을 공포하였다. 1992.10월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중재로 내전은 종식되었으며, 1994년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통해 시사노(Joaquim Alberto Chissano)가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1997년 대선에서도 재선되었다.

2) 최근 상황

모잠비크는 1992년, 17년간의 내전을 끝내고, 1994년 독립 이후 최초의 민주 다당제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프렐리모당의 게부자(Armando Emilio Guebuza)가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그는 부패척결, 법과 질서의 확립, 무사안일 타파 등을 정책으로 내세우며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서방국가와 UN, IMF 및 세계은행의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후 외국투자 유치에 주력한 결과 최근 모잠비크는 7~13%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프리카 내전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경제개혁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2) 정치구조

1) 모잠비크 정치구조

신헌법이 공포된 후(1990년 11월 30일), 모잠비크는 사회주의노선을 포기하고 다당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으로 3선까지 가능하다. 대통령은 각료, 최고인민재판소장, 검찰총장, 지방장관, 중앙은행 총재, 경찰청장, 대학총장의 임명권이 있다. 현재 모잠비크 대통령은 게부자(Armando Elmilio Guebuza (2004))이다. 내각은 총리 및 25개의 부처장관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대통령이다. 의회는 일원제 임기 5년으로 의원 250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프렐리모가 의석의 160석, 레나모가 나머지 90석을 차지하고 있다(2004년 12월 총선결과).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활발한 편이다. 보통선거권이 1990년 헌법에 의해 보장된 후 여성들은 의회와 내각에 많이 진출 하게 되었고 특히 2004년

화국의 지원을 저지하기 위해 1976년 백인 로디지아 장교들에 의해 결성되었다.

¹¹ -기본원칙: 3권분립, 복수정당제, 비밀선거보장, 다당제 등

-기본권: 사형제도폐지, 언론의자유, 노동쟁의보장 등

-자본주의경제체제도입: 개인의 토지소유 인정 등

루이자 디오고(Luisa Dias Diogo)는 첫 여성 총리에 임명되었다.

모잠비크에는 정부의 공식 행정기관에서 선출 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역 리더들이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리더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인정한다. 지역 리더들은 지역의 문제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되며 정부는 지역 리더들에게 행정업무를 지시하게 된다. 25 세 이상의 성인이면 지역 리더의 자격이 되며 임기의 제한은 없다. 지역 리더들의 공식적인 월급은 없지만 직책에 따라 유니폼이 지급되며 세탁비 명목으로 적은 돈을 받는다.

또한 모잠비크에는 전통 추장이 있어서 주민을 돌보는 일과 전통종교적 의식을 함께 맡는다. 포르투갈식민지 시대에는 추장연합이 있었지만 현재 지역 리더가 생겨났고, 추장연합은 사라졌다. 현재 추장의 권위와 정치적인 힘은 상징적인 것이 되었고 단지 명목상 추장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마싱가 시(市)의 정치구조

마싱가 시는 국가에서 정한 기본적인 정치체제와 행정절차를 따른다. 이와 별도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지역리더들은 주민과 함께 살며 주민의 입장과 가치, 생각을 대변한다. 또한 마싱가 시에는 3 명의 추장이 있어 마을 행사나 지역 문화에 관한 사항을 맡게 된다. 이곳에서는 추장이 죽으면 그의 직속 가족에게 추장 직분을 넘겨야 하지만 그 직분을 수행할 나이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남동생에게로 추장자리를 넘기게 된다. 그 후에 남동생이 죽으면 원래 추장의 아들에게로 추장자리가 넘어간다. 예전 포르투갈 식민지 시대에는 추장들의 연합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는 서기가 생기고 커뮤니티 리더가 생겨난 이후에 추장의 모임은 없어졌고 추장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3) 후날로루 군(郡)의 정치구조

후날로루 군의 의회는 16 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15 명의 프렐리모(여당) 당원과 1 명의 레나모(야당)당원으로 이루어져있다. 후날로루 군은 주민을 15 명 단위로 묶고 각 그룹마다 리더를 세워서 주민의 문제를 수렴하고, 조언을 얻는다.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기술 위원회가 있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 무엇이 필요한지 상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구조는 예전의 사회주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날로루 군에는 2 명의 전통적인 추장이 있으며 이들은 주민들과 함께 살며 지역 행사나 장례 등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권력은 없다. 군 관계자와 추장과의 관계는 호의적이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최근 후날로루 군의 정치적 이슈는 가뭄에 관한 것인데, 강수량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과 열악한 건축자재를 보충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3) 행정구조

모잠비크 전체의 행정구역은 10개의 주(province)와 224개 소지역 및 33개 도시(city, town)로 나누어져 있다. 주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33개의 주요도시의 장(長)은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¹² 주요도시로는 수도인 마푸토(Maputo), 베이라(Beira), 말톨라(Matola), 남풀라(Nampula) 등이 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크게는 모잠비크를 10개의 주로 나누며 가장 작게는 주민을 15명 단위를 두어서 1명의 그룹장을 지명한다. 이렇게 묶음으로써 주민들의 문제나 안전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 사항을 세심하게 상위 단계의 그룹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더욱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4) 치안

현재 모잠비크의 치안은 전반적인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불안한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사설경비원을 두고 있다. 도시 내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설 경비원을 쉽게 관찰 할 수 있다. 내전이 종식 된 이후 민간인 총기의 회수를 위해 총기를 식량으로 바꾸는 정책을 썼으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으로 인하여 현재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는 매우 낮다. 총기에 대한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지뢰가 많이 있어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수도 마푸토를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는 지뢰가 많이 제거되었지만 북부 지역에는 여전히 지뢰의 위협 속에 놓인 지역이 많이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의 한계는 지역 스스로 범죄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로 유지한다. 중 범죄를 범한 범인을 나무에 매달아 화형을 시키는 장면을 간혹 TV에서 볼 수 있다.

1) 마싱가 시의 치안

마싱가 시는 치안이 매우 잘 유지 되고 있는 지역이다. 17년간의 내전 가운데서도 이 지역은 평화를 유지했다. 안정적인 치안 덕분에 정부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외부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주민의 협조도 활발하다.

¹² 2003년에 지방선거가 있었다.

2) 후날로루 군의 치안

후날로루 군의 치안 또한 매우 안정 되어 있다. 지역 주민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농작물 서리와 같은 가벼운 범죄를 제외하고는 중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뢰의 위험이 높은 곳이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이지만, 그 수가 많아 별 다른 방편이 없는 실정이다.

(5) 요약

독립 이후 모잠비크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1990년에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었고 1992년 내전이 종식됐다. 프렐리모의 집권 이후 국내 정세는 상당히 안정되었고, 안정된 정치와 외국투자유치정책으로 모잠비크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 많은 외국 자본을 유지하고 상당한 원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부의 많은 원조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로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의 향상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실재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돈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기술력 부족과 인식 부족으로 원조된 장비가 잘 관리 되지 못하므로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필요하다.

지방정치 중 특징적인 것은 시장이나 군수 외에 지역 리더와 추장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 리더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고 특정한 월급도 없지만, 정부에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지역 리더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러한 조화는 모잠비크 내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책 수립 과정 중에 있어서 일방적인 행정과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3. 경제분야

(1) 개요

독립 직후의 모잠비크 경제는 중앙계획경제였으며 농업, 수산업,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숙련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포르투갈 노동자들의 이민과 토지의 국유화, 국영농장의 설치 등으로 제조업은 물론 농업부문도 침체되었다. 그러다가 1983년부터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외자도입을 추진하였지만 내전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4년 최빈국이 되었지만, 1997년 이래 연 8%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면서(1997년은 11.1%)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2000년 2월에 50년 만의 홍수피해로 경제침체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이를 잘 극복하였다. 아직도 외국의 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꾸준한 발전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 지정 최빈 개발도상국가 중 하나이다. 현재 수출품은 순위는 알루미늄, 천연가스, 새우 순이다. 그리고 최근 관광산업이 연 37%의 성장을 보이며 세계 최고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풍부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잠비크 정부는 IMF 및 세계은행과 제2차 빈곤감소전략에 합의하고 빈곤층 인구 비중 감소, 연평균 경제성장률 8% 달성, 고용 및 수출증진, 농촌에 대한 소액신용 등 재정지원 확대, 정부재정 수입 증대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마추아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경제 발전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마추아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¹³

(2) 산업구조

농업은 모잠비크 GDP의 50%를 접하는 주력산업으로 다양한 농산물이 산출되고 있다. 현재 경작가능 면적은 36백만ha과 60개이상의 강이 있어 농업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25%정도만이 경작되고 있다. 북부지역에는 옥수수, 밀, 해바라기, 콩, 땅콩, 면화, 캐슈넛과 연초가 재배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구비되어 있고 기타지역에서는 차, 면화, 사탕수수 등이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다. 모잠비크에는 석탄을 비롯한 알루미늄, 티타늄, 석탄, 보크사이트, 탄탈라이트, 에메랄드, 금, 석회석, 화강암 등의 광물이 풍부하다. 최근 모잠비크와 남아공이 공동으로 이남바네 지역의 천연가스 유전을 개발하고 있으며 석탄 매장량은 약 10억톤에 달하고 있으며, 최초생산량은 연간 800천톤이나 9백만톤까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산업도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데 새우, 바다가재를 비롯한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식산업에도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 해안을 따라 1,700km의 광대한 홍수림(mangrove)이 형성되어 있어 새우류 서식에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타 굴, 홍합 및 진주양식 여건도 양호하다. 최근 모잠비크의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제조업은 모잠비크 GDP의 7% 차지하고 있다. 2001년 Mozal¹⁴ 알루미늄 제련소 가동 이후 33%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을 보이며, 2003년 14%, 2004년 10% 등의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자본 부족, 높은 차입 비용, 관료주의, 국내시장의 협소성 등으로 국내 제조업 생산비용이 상승, 남아공 및 여타 외국으로 부터의 수입품과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⁵

¹³ 주잠바브웨 대사관에서 2006년 9월에 작성한 모잠비크 개황을 참고하였다.

¹⁴ Mozal은 남아프리카지역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9월 21에 세워진 알루미늄용해공장이며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Mozal I 프로젝트는 1998년에 승인되었고 Mozal의 대주주인 BHP 빌리톤의 파트너는 IDC(Industrial Development Corporation), 미쯔비시(Mitsubishi)상사 그리고 모잠비크정부이다.

¹⁵ 주잠바브웨 대사관 2006년 9월 ‘모잠비크 개황’을 참고하였다.

마추아족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싱가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큰 상업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스스로 잡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러한 이유는 사업을 크게 할 경우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업에는 비누 공장이 있지만 공장이 갈대로 만든 건물로 매우 작은 규모의 산업이다. 서비스 업종으로는 주변에 작은 호텔이 있다.

후날로루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반에 ‘갈갈이’ 이라는 석회 성분의 돌이 깔려 있고 지역 전체에 강이나 호수 또한 없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업은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며 규모가 큰 대부분의 상업은 국도 주변으로 밀집해 있다. 하지만 상업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3) 발전수준

마추아족은 포르투갈의 500년 식민지 지배와 독립 이후 사회주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유의 경제적 특징을 잃어버려 마추아족의 일반적인 발전 수준은 모잠비크 전체에 따른다.¹⁶ 모잠비크의 GDP는 \$82억(2005년), 실질 GDP 성장률은 7.7%(2005년), 1인당 GDP는 \$428 (2005년)¹⁷, 1인당 GNP는 \$310 (2005년)¹⁸이다. 모잠비크의 통화를 메티칼(metical)이라고 부르고 ‘MT’ 로 표시하고 환율은 MT 25.4 = USD 1 (2006년 평균)¹⁹이다. 모잠비크는 수도 마푸토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다른 지역들과의 발전 차이가 많이 난다. 수도인 마푸토는 우리나라의 도시에 견주어도 될 만큼 잘 개발되어 있으나 마푸토에서 1시간 정도만 차를 타고 나오면 우리나라의 가장 낙후된 시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해 마푸토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외제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한번도 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빈부차도 심하다. 그리고 현재 경제의 대부분을 모잠비크 자국 내에서 해결하거나 운영하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수출품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 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잠비크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기의 경우 서북부의 수력 발전소를 통해 불규칙적인 전기를 생산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수출한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다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¹⁶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개요의 종족 특징을 참고하여라.

¹⁷ 주잠바브웨 대사관 2006년 9월 ‘모잠비크 개황’을 참고하였다.

¹⁸ http://www.studentsoftheworld.info/pageinfo_pays.php3?Pays=MOZ&Opt=economy

¹⁹ CIA World Fact Book

(4) 주요산품

모잠비크의 주요 생산물은 농업품으로는 옥수수, 수수, 콩, 쌀, 카사바, 설탕, 캐슈넛, 면화, 담배, 차, 해바라기씨 등이 있고 임업품으로는 목재, 수산업은 새우, 광업으로는 알루미늄을 생산중이고 천연가스도 채굴하고 있다. 특히 광물자원으로 알루미늄, 티타늄, 석탄, 보크사이트, 탄탈라이트, 에메랄드, 금, 석회석, 화강암 등 많은 종류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질학적 정보 부족, 광업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부족, 정부기관의 역량 부족,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아직 미개발된 광물자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외국 자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로는 Cahora Bassa 댐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²⁰

마추아족이 살고 있는 마싱가 지역은 캐슈넛, 마프레이노 열매, 오렌지, 귤, 망고, 코코넛이 주 생산물이며 거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여 자급자족을 하는 편이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식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수확을 해서 다른 물품과 교환하기도 한다. 현재 농업 협동조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추진할 경우에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농업조합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재정은 중앙 정부에서 빌려준다. 중앙 정부에서 1년 동안 이남바네에 분배되는 자금은 700만 메디칼인데 이 돈은 각 시와 군의 인구와 크기에 따라 알맞게 분배되며 이번에 마싱가시에 주어진 재정의 주목적은 직업 창출과 농업 활성화이다. 후날로루 지역은 목재, 건축을 위한 돌, 캐슈넛, 가축 등이 주요 생산물이다. 전통적으로 매우 메마른 곳으로 이남바네에서 가장 기근이 심한 곳이다. 후날로루의 뜻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일 정도로 상당히 메마른 곳이다. 추수한 후에도 추수한 곡식이 식량으로 충족 되는 기간은 얼마 안 되고 그나마 도움을 받는 것은 캐슈넛 열매를 팔거나 먹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목재를 팔아서 부족한 부분을 사들이게 한다.

(5) 요약

모잠비크는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다. 유엔 지정 최빈개도국에 지정되어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많은 광물자원으로 인해 외국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산업에도 큰 성장이 있어서 3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전이 외국 회사들의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상 모잠비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마추아족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서 관광, 제조, 광업 등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급자족

²⁰ 주잠바브웨 대사관 2006년 9월 ‘모잠비크 개황’ 참고하였다.

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모잠비크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에 관심을 가져 새로운 경쟁력 있는 작물의 재배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며, 1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2,3차 산업에도 손을 뻗을 수 있도록 기술들을 가르치는 기술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선교적 접근이 될 수 있다.

4. 생활분야

(1) 개요

마추아 종족의 생활 패턴은 자연의 순서와 함께 흘러가는 모습이다. 전기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실질적인 일과는 아침 해가 뜬 때부터 질 때까지 이루어진다. 새벽녘에 닭들이 울고 이에 맞추어 사람들이 일어나 여자들은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온다. 식사는 하루에 두 끼 정도 밖에 할 수 없고 옷이나 신발을 살 형편도 되지 않는다. 집안일을 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아이들을 업고 있는데 이 중에는 10대 소녀들도 많다. 집들은 나무와 갈대, 흙으로 지은 것으로 낮은 나무와 식물들로 담장이 쳐져 있지만 배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집집마다 넓은 마당이 있으며 닭과 오리 등의 가축들이 자유로이 돌아다니고 있고 주변에서 야자수, 망고, 레몬 등 풍부한 과일 나무들을 볼 수 있다. 식생활은 포르투갈의 영향으로 서양식이고 의복 역시 현대식이다.

(2)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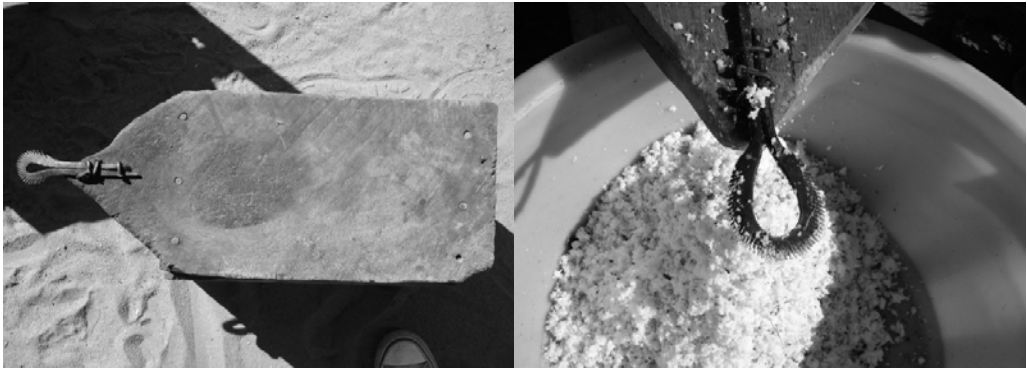
〈그림Ⅲ-3 까릴 드 꼬비〉



〈그림Ⅲ-4 까릴 드 뻬이자웅〉

마추아 종족의 식생활은 일반 모잠비크의 상황과 동일하다. 쌀과 빵을 주식으로 하는데 아침에는 바게트 빵과 함께 차를 마신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버터나 잼을 사서 빵에 발라

먹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유가 없기에 시중에서는 버터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빵 전체에 대강 발라주어서 판다고 한다. 그리고 세끼 식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며 모잠비크는 전반적으로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한다. 식사는 주식인 쌀밥에 까릴(caril)을 부어 먹는데 까릴은 카레의 포어이다. 밥과 함께 케일과 코코넛가루를 넣어서 만든 까릴 드 꼬비, 강낭콩으로 만든 까릴 드 빼이자웅은 즐겨먹는다. 코코넛 속의 하얀 부분을 기구로 갈아서 만든 코코넛 가루는 까릴을 만들 때 널리 이용된다. 그리고 상추,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데, 소스로는 식용유, 식초, 후추와 같은 조미료를 넣어서 만든다. 그리고 ‘빠리빠리’ (맵다라는 뜻)라고 불리는 매운 고추 소스가 있어서 밥에 비벼 먹는 등 식사 때 즐겨 먹는다.



〈그림Ⅲ-5 코코넛가루를 만드는 기구 모습, 나무판자 위에 얹어서 코코넛을 가는 모습〉

식습관에서는 포르투갈 식민 지배의 영향을 볼 수 있었는데 식사를 하기 전 주전자에 물을 담아와 손을 씻게 하고 수건으로 닦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입을 다물고 먹어야 하며 개인 숟가락과 밥을 덜어먹는 전체 숟가락이 구별된다. 또한 식사 중에 식탁 위에 있는 물건을 가져올 때에 옆 사람 앞으로 손이 가는 것을 실례로 여겨서 멀리 있는 물건은 옆 사람에게 부탁해서 가져오도록 한다. 그리고 식사를 빨리 마쳤을지라도 자리를 뜨지 않으며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해를 구해서 먼저 일어나도록 한다. 식기들은 접시와 컵, 숟가락과 포크 등 서양식이다.

또한 모잠비크는 바다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해산물이 풍부한데 새우는 수출품목 3위일 정도로 수확량이 많다. 그러나 마추아 족의 식탁에서는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야자 나무와 망고 나무 등 과일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코코넛, 파파야, 감귤, 오렌지 등 과일들을 파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판매를 할 뿐 직접 먹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조상의 기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소, 염소, 닭과 같은 고기 요리를 하고 술을 만들어 먹고 한다. 대부분의 기르는 가축은 판매를 한다고 한다.

(3) 의복

마추아 종족의 의복은 전통 의상이 아닌 현대식 복장이다. 그러나 옷의 여벌이 충분치 않고, 옷의 상태도 남루하다. 여자들은 현대식 복장 위에 까뿔라나(천)를 둘러서 치마로 입기도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까뿔라나를 둘러야 한다. 아이들은 계절과 상관없이 얇은 반팔 티를 입고 있고, 학교 교복이 있지만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기 어렵다. 신발의 경우 어른들은 대부분 신고 있지만 아이들은 대다수가 맨 발이거나 조리와 같은 형태의 얇은 슬리퍼를 신고 있다. 속옷의 경우, 일부 여성들은 브래지어와 같은 상의 속옷을 입고 있다. 추장의 경우 특별한 의식을 행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으나 큰 차이가 없고, 전통 춤을 추는 사람들도 특별한 의상이 없었다.

(4) 주거



〈그림Ⅲ-6 둥근 모양의 전통 집〉



〈그림Ⅲ-7 아치수 지붕과 갈대로 지은 집〉

마추아 종족의 가옥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것은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른 것으로 모잠비크는 전반적으로 가옥의 형태가 비슷하다. 다만 수도인 마푸토에서만 아파트나 빌딩 등 시멘트와 벽돌로 쌓아 올린 다층 건물을 볼 수 있다. 마푸토 시내와 해변가에는 정원과 담장을 갖추고 2층 이상으로 건축한 집들을 볼 수 있는데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똑같은 모양의 집이 없을 정도로 다채롭다. 이것은 대부분 외국인의 집이거나 모잠비크 고위층의 집이다.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공공 기관 외에는 다층 건물을 볼 수 없고 시멘트로 쌓아 올린 집들도 적어진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은 시멘트로 벽돌을 만들어서 짓거나 양철로 집을 만든다. 벽돌을 사는 것 보다 시멘트를 사서 벽돌을 만드는 것이 더 많이 만들 수 있기에 재정이 생길 때

마다 시멘트를 사서 벽돌을 만들어 쌓아 올라간다. 그래서 다 완성되지 않은 집에서 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보통 흙과 돌맹이, 짚으로 만든 집에서 살고 있는데 흙으로 둥근 터에 벽을 쌓아 올리고 짚으로 지붕을 얹은 것이 전통 집이라고 한다. 현재는 터가 네모난 것이 많다. 나무로 대강의 기둥을 세우고 갈대와 같은 딱딱한 줄기로 벽면을 만든다. 지붕은 야자수 잎이나 ‘까빠’라 불리는 짚으로 엮었는데, 야자수 지붕은 잎을 반으로 찢개어 엮갈리게 땀아 만든 것이다. 땀은 야자수 잎을 여러 개 포개어 벽면으로 삼은 집도 있었다. 방은 냉 난방이 전혀 되지 않으며 흙 또는 시멘트 바닥이 전부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들은 단칸방이다. 그래서 가정마다 두 세 개의 집을 가지고 있다. 화장실은 갈대와 같은 줄기로 만든 푸세 식 화장실인데 지붕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갈대 줄기로 삼면을 쌓고 들어오는 입구 쪽 면을 밖에서 보이지 않게 어긋나게 옆으로 한 면을 더 만들었다. 그러나 갈대와 천으로 대강 이어서 만든 화장실도 많이 보인다. 대변을 보는 곳과 소변을 보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데 세면을 하는 곳에서 소변도 함께 보는 것이다. 세면을 하는 화장실 역시 갈대 줄기로 만든 것이며 내부에는 대야를 둘 수 있는 나무 탁자가 있다. 수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물에서 떠온 물을 대야에 담아 와서 씻고 바닥에 버리는 것이다. 부엌은 갈대 줄기로 따로 집을 만들어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대개 마당에 나무 탁자를 두어 위에 식기 도구를 쌓고, 옆에 우물에서 떠온 물통을 두는 정도이다. 요리는 삼발이를 두고 나무 장작으로 불을 지펴서 만들거나 솥을 모아 요리한다. 마당 한 켠에는 원두막 모양으로 지은 옥수수 저장고도 있다. 저장고는 다리가 긴 형태로 위쪽에 옥수수를 저장하기도 하고 옥수수를 말리는데 쓰기도 한다. 저장고는 집집마다 있는 것은 아니며 나무에 둥글게 묶어 매달아 두기도 한다. 이렇게 대개의 가정은 방으로 쓰는 두 개의 집과 푸세 식 화장실, 세면실용 화장실, 부엌 등 생활공간으로 쓰이는 마당이 낮은 담장에 둘러 쌓여 있다.



〈그림Ⅲ-8 저장고〉



〈그림Ⅲ-9 나무에 매달아 놓은 저장고〉

(5) 위생의료

2006년 9월 짐바브웨 대사관의 ‘모잠비크 공화국 개황’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말라리아 감염자수는 340만 명이고 이 중 2400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2006년도 UNAIDS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15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에이즈 감염률은 16.1%이며, 성인 및 아동을 포함한 총 감염자수는 약 180만 명, 사망자수는 약 14만 명에 달한다. 에이즈는²¹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전체 교사의 17%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2010년까지 9200여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교육 부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이즈로 인한 고아 숫자도 현 42만 명에서 2010년까지 1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문제를 낳고 있다. 임신부의 경우 보건소에서 피검사를 받아야 하고 임신 후 7개월부터 산모가 에이즈 예방 접종을 하면 아기의 에이즈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산모가 사회에서 문란한 여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염려해 검사 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자녀도 에이즈에 걸리게 된다. 또한 모잠비크는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부족이 심각한데 이것은 교육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전문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인 마푸토 이외에는 병원이 없을 뿐 아니라 의사를 찾기도 힘들다. 대부분의 시에서는 병원 대신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고, 의사 없이 간호사가 진료 하고 있다. 간호사는 10학년 이후에 간호학교에 진학하여 2년 반의 교육과정을 밟은 것으로 3년간 교육을 받으면 수간호사가 된다.

1) 마싱가 시의 위생

보건소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이 병원으로 발전해 내년에 오픈 할 예정이다. 현재 병원 건물은 완공 되었다. 이전에는 중환자가 생기면 마푸토로 보내야 했었는데 현재는 의사 2명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3시 30분에 업무가 끝나는데 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어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작은 보건소가 있어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의사들이 그 지역을 순회하며 방문하고 있다. 마싱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말라리아, 회충, 기생충, 당뇨, 결핵, 나병, 루마티즘 병이며 사람에 따라서 병원을 찾아가거나 코랄데이(주술사 개념의 전통 치료사)를 찾아가는다. 코랄데이는 보건소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환자의 필요를 보고 보내고 있으며 전통의사는 주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²¹ 2006년 9월 주 짐바브웨 대사관 모잠비크 공화국 개황 보고서 통계 자료를 참고하였음.

2) 후날로루 군의 위생

4개의 보건소가 있으며 중심이 되는 보건소에는 기초 간호사 5명, 기초보다 높은 직급의 기본 간호사 4명, 기본 간호사 보다 높은 직급의 재탈 1명, 의사 역할을 하는 테크니션이 2명 있다. 의사는 없었으며 다른 보건소 역시 의사 없이 산파와 한 곳은 기본 간호사가, 두 곳은 기초 간호사가 있다. 보건소는 1994년에 지어졌고 내년 2월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근무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주말에도 근무한다. 보건소 내에는 임신부실, 분만실, 신생아 신체 검사실, 면접 진찰실, 치료실, 실험실(말라리아 검사실), 예방 접종 실, 약국, 사무실, 디렉터 사무실, 입원실이 있으며 의료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입원실이 부족하여 보건소 외부에 나무와 갈대로 12개의 입원실을 지었으며 현재 13명을 입원하고 있다. 진찰료는 1메디칼이며, 진찰 후 치료되기까지의 약값은 5메디칼이다. 입원은 무료이며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 이외에 NGO단체 빼이마, 마카사(AIDS관련 단체), 마잠비크 기독교 연합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다.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외과, 내과와 같은 구분 없이 다양한 질병들을 진료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 더 큰 규모의 병원으로 이송 시 마싱가와 마시시로 보내는 데 각각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은 말라리아와 성병이다. 말라리아 치료는 말라리아에 대한 1차, 2차, 3차 진료 단계가 있어서 그 단계에 따라 진료하며 죽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대부분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AIDS환자는 10명 중에 최소 3명이 나온다고 한다. 보건소는 20명 정도의 코랄데이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 환자의 개인 성향에 따라 전통적인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코랄데이를 찾아 가게하며 코랄데이 또한 경우에 따라 보건소로 환자를 보낸다고 한다. 코랄데이는 풀 뿌리, 약초 등으로 전통 치료를 하고, 또한 영을 불러서 치료한다고 한다. 환자뿐 아니라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깊은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코랄데이는 주술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고 하며 돈을 들였지만 제대로 치료가 안 되었을 때 갈등이 있다고 한다.



〈그림Ⅲ-10 보건소의 외관〉



〈그림Ⅲ- 11 입원실〉

(6) 환경과 물

마추아 종족의 상하수도 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시내에는 물탱크가 있어서 물탱크에 물을 모아 공급하지만 주민들이 사는 마을은 전혀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있지 않다. 물은 여자와 남녀 아이들이 우물에서 길러온다. 마싱가는 우물에 물이 풍족하고 냇가가 있어서 근처에서 밭 농사를 짓는 등 풍족한 편이나 후날로루는 물을 기르는 데 1~2시간이 걸릴 정도로 열악하다. 보건소 앞 우물은 14M정도로 깊었으나 바닥은 말라 있었다. 겨우겨우 쏟아나는 물을 기다렸다가 담아 올렸고 물색은 회색 빛으로 탁했다. 우물은 이 밖에 3~4개가 있는 데 모두 소금기가 있다고 한다. 물을 길어 올리는 물통도 이끼가 잔뜩 끼어 있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 후날로루는 기름 지역이어서 해결방안으로 빗물을 받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수처리는 마싱가, 후날로루 모두 처리 시설 없이 바닥에 그대로 버린다.



〈그림Ⅲ-12 후날로루 군의 우물가〉



〈그림Ⅲ-13 후날로루 군의 우물 바닥〉

(7) 교통

마추아 종족은 미니 버스와 소형 트럭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미니 버스는 자리가 찼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항상 버스 안은 만원이다. 소형 트럭은 뒤 칸에 수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빼곡히 서서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마싱가를 지나는 고속도로가 하나 있는데 도로는 일차 선이며 깨끗이 포장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도로는 흙먼지가 날리는 비포장길이며 마을 안의 길은 모래사장이라 차로 이동하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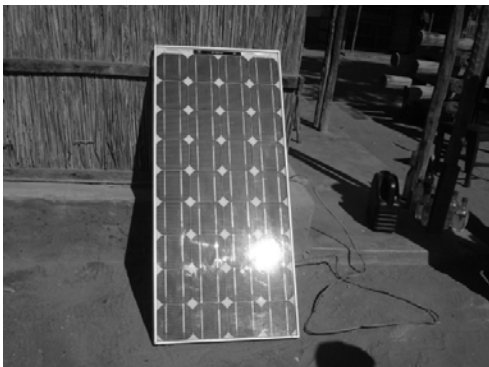
〈그림Ⅲ-14 미니버스〉



〈그림Ⅲ-15 비포장 길〉

(8) 대중매체 보급률

모잠비크는 전기관련 사회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수도를 제외한 시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을 찾기 힘들고 전화선이 없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길거리에서도 공중 전화가 없어 개인의 휴대폰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마추아 종족의 몇몇 가정은 집 앞에 작은 태양열 판을 두어서 전기를 보급받고 있었다. 전기량이 적어 다른 곳에 이용하지는 못하고 휴대폰을 충전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가정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고 저녁에는 촛불을 켜고 있다. TV와 같은 가전제품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정부 관료의 집에서는 TV와 DVD 등을 볼 수 있었다. 라디오는 대부분의 가정에 공급되어 있으며 마싱가 지역에만 방송하는 커뮤니티 라디오도 있다. 신문은 있지만 거의 살 수 없다. 컴퓨터는 경찰서, 군청, 농림부, 라디오 방송국에만 있고 발전기를 돌려서 자체 전기를 생산한다고 한다. 우체국은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림Ⅲ-16〉태양열 판

(9) 요약

마추아 종족의 생활은 전반적인 모잠비크의 상황과 유사했다. 끼니도 잇기 어려운 식생활과 부족한 의복, 냉난방 시설이 없는 집들과 위생적이지 못한 화장실 등 생활 상에서의 어려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위생의료의 경우 지역에 몇 개 되지 않는 보건소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주술사인 코랄테이와 보건소가 연계하여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또한 간호사가 분야를 망라하고 모든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어서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다. 의료 선교는 의사가 없는 마싱가와 후날로루 지역의 마추아 종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밖에 가뭄지역이었던 후날로루 지역에 물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선교의 좋은 접촉 점이 될 것이다. 빗물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으나 빗물을 모을 물탱크가 여의치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그 물의 수질도 탁하였으므로 물을 정화하여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5. 사회분야

(1) 개요

모잠비크 마추아족은 이남바네 주에서 인구분포가 가장 높은 종족으로 농업이 발달한 정착 농업사회의 형태를 가진다. 대체로 집 안에서 노동을 해결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이며, 가정마다 자녀수가 많다. 가장은 한 가정의 나이가 많은 남성이 하며 지위와 역할이 가장 높다. 가사일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나 아이들도 물 기르는 일, 씨 뿌리는 일 등 소일거리로 부모의 일을 돕는다.

(2) 가족구조

마추아족은 이남바네 주의 북서부를 중심으로 두루 마을을 이루며 부족중심으로 모여 산다. 부계로 가족과 전통을 이어가며, 가족내의 모든 의사결정은 집안에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가 한다. 한 가정에 4-6명의 아이가 있으며, 핵가족을 이룬다. 부족의 대표 추장이나 코란테이(전통치료사)같은 경우에는 일부다처인 가정이 많다. 가사일은 주로 여성이 하며,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그 일손을 돕는다. 주로 남성은 외부에서 직장을 가지고 수입을 얻기 때문에 항상 집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정기적으로 가정에 돌아오는

경우도 드물다. 그래서 생계를 위한 일들도 여성이 맡아서 하는 가정이 많다.



〈그림III-17 가사일을 하는 여성의 모습〉



〈그림III-18 물동이를 인 아이들〉

(3) 리더십, 지배구조

이남바네 주에는 모잠비크 전체에서 세운 군수와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이 직접 선출한 서기,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그 직위를 이어온 부족의 추장이 있다. 군수는 정부 소속으로 군 전체 일의 총 책임자이며, 군수와 함께 당 책임자가 정부정책의 실제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정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 서기는 25세 이상의 성인이 할 수 있고, 여성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며 임기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뽑힌 서기를 공식적으로 지원금을 주지 않지만, 그 직위를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마추아족에는 현재 52명의 추장이 있다. 추장의 연합이 있었던 포르투갈 시대와 달리 현재는 서기가 생겨나 추장의 모임이 사라졌다. 추장은 가족 내에서 직위를 이양하는데,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형제에게 맡긴다.

(4) 주변 종족 및 이웃과의 관계

이남바네 주에는 쉘배족과 비통족 마추아족이 거주하며, 각 종족의 언어는 다르지만 종족 개념이 강하지 않다. 내전 이후 시설이 확충되고, 상업이 발전되면서 종족의 이동도 잦아졌지만, 크게 갈등이 있지는 않다.

(5) 사회적 모임

후날로루 군의 마추아족은 주민을 15명 단위로 묶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각 공동체마다 리더를 선출하여 마을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만약 해결하지 못한 문제일 경우 추장 또는 서기에게 알리고 마을 전체가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정부적 요청을 가한다. 특히, 가뭄지역인 이 지역은 발전을 위한 기술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무엇이 필요한지 상의한 후 정부로부터 기금을 형성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에 강한 농작물과 건축자재를 보급한다. 마을 자체 내에서 학교 건립과 같은 시설확충에 필요한 작업들을 자체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함께한다.

(6) 현재 이슈

후날로루 군내에 첫 번째 중·고등학교(8,9학년)가 건립되고, 3개의 초등학교가 건립완공중에 있다. 또한 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관한 민주교육을 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설을 건립할 보건소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7) 여성의 역할

마추아족은 전통적으로 부계사회로 여성의 지위가 낮다. 식사시간에 여성은 허리를 굽히고 나이가 가장 많은 남성의 옆에 다소곳이 앉아 있어야 하며, 모든 가정일은 여성이 하는데 새벽부터 해가 지기까지 아침에 물을 기르는 일, 청소, 음식준비, 아이양육, 손님접대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의 남성이 마푸토(수도)나 남아공에서 일을 하는 등 외부로부터 소득을 얻기 때문에 가정과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따라서 가정의 많은 여성이 밭농사를 해서 장사를 하거나, 코코넛 잎으로 지붕 만드는 일 등 작은 부업으로 생계도 꾸려나가는 일까지 해야 한다.

모잠비크는 교육분야에서 좋은 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며, 고등교육 또한 거의 받지 못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어서 성교육의 현실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어린 나이에 혼례의 절차 없이 가정이 탄생하는 경우 양육뿐만 아니라 생계의 어려움을 가진다. 남성이 가정을 버리는 경우도 다반사기 때문에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성이 많다.

하지만 현재 교육과 인식의 변화로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추세이며, 1990년 보통선거권이 확립된 후 여성이 정치적으로 의회와 내각에 많이 진출하고 있다.

(8) 요약

전통적인 농업사회 구조를 따르는 마추아족은 가장의 지위와 역할이 높은 가부장적 가족제 도이고 자녀 수가 많은 핵가족 형태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지위는 낮으며, 대부분의 여성은 가사일은 물론 생계를 위해 일일 한다. 마을 단위로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각 마을마다 전통적으로 직위를 이양해온 추장이 있고, 독립 후 정부에서 세운 군수와 자체적으로 선출된 마을 서기가 있다. 농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각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며, 현재 후날로루 군 학교건축에 함께 참여하고 힘쓰고 있다.

교회에서는 일부다처제, 미혼모 가정을 위한 복지교육과 성경모임이 필요하며 교회지도자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성경적 바탕의 발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6. 문화분야

(1) 개요

모잠비크의 문화는 모잠비크 전통문화와 약 500여 년간의 포르투갈 식민통치에 의한 포르투갈의 문화로 예술 전 분야뿐 아니라 생활풍습에 곳곳에 베여있다. 이남바네주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마추아족 역시 포르투갈문화를 습득하고 마추아족 전통문화와 동화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전통문화가 많이 보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2) 예술



모잠비크 전통 음악은 전국적으로 널리 연주되며, 북쪽에는 루뎬베(lupembe)라는 관악기가 전해지고, 남쪽에는 남아프리카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실로폰 형태의 마림바(Maramba)를 연주하는 마림바 오케스트라가 있다. 현대 음악도 도시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지방의 전통적인 마지카(majika) 리듬의 영향을 받은 경쾌한 스타일의 마라벤타(Maraventa)가 유명하다. 마라벤타는 모

〈그림Ⅲ-19 마추아족의 전통춤〉

잠비크의 춤 음악 중의 하나이다. 이 음악은 모잠비크의 수도인 마푸토에서 발달되었으며 이 음악의 뿌리는 포크뮤직(Folk music)이라 할 수 있다.

마싱가시 마추아족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춤꾼이 있으며, 국빈이 방문하였을 경우 공연을 한다.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시작으로 북을 이용하여 장단을 맞추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화답하는 식의 전통 춤이다. 이 춤은 모잠비크의 회복을 기원하는 춤으로 전통적 기원의 의미를 포함한다.

(3) 결혼

마싱가 시 지역에서의 결혼식은 정부의 등록 절차에 따라 결혼식을 하고 파티를 하는데 모잠비크 전체의 카톨릭식 결혼 풍습과 비슷하다. 18세 이상이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할 수 있다. 18세 이전에도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등록을 할 경우에 벌금을 물게 된다. 남편이 부인의 부모에게 주는 지참금을 뜻하는 로블로(Robullo)는 공식적인 결혼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다. 후날로루 군에서 과거의 지참금은 소 3-5마리 였으나, 현재는 돈이나 옷, 생활 용품이다.

(4) 장례

후날로루 군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가족을 불러 시신을 물로 닦고 옷을 입힌 후 관에 집어 넣는다. 그 관을 어깨로 매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릇에 물을 담아 손을 닦는다. 시신을 묻기 전에 계란 2개와 풀을 섞어서 무덤 속에 집어넣는다. 이러한 의식은 시신의 질병이나 부정이 가족과 친척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의식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원을 하게 된다. 이 의식을 행하는 사람은 연세가 많은 사람 또는 월경을 하지 않는 여자가 맡아서 한다. 마싱가 지역은 특별한 의식 없이 묘지를 만든 후 십자가를 꽂는 카톨릭식 형태를 따른다.

(5) 예절

1) 인사법

모잠비크의 공식어인 포르투갈어로 아침에는 ‘본디아(Bom dia)’, 오후에는 ‘보아 따르디(Boa tarde)’, 저녁에는 보아 노이띠(Boa noite)’ 로 인사한다. 인사를 한 후에는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는데, 서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가정과 사업에 대해 계속

물으면서 오랫동안 인사한다. 특별히 마썩가(마추아족) 지역에서는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에게 인사를 할 경우, 허리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손뼉을 가볍게 치며 인사한다. 북쪽 지역에서는 멀리서 인사를 할 경우 무릎을 꿇은 채로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표현한다.

2) 일반예절

모잠비크 일반예절은 포르투갈 문화에 따르며 신사적 예의범절을 중요시 여긴다. 식사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하는 행동은 삼간다. 모잠비크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며, 항상 감사를 표현한다.

3) 종교예절

여성의 경우 교회를 갈 때에 까뿔라나(무늬가 있는 천 조각으로 이를 허리에 둘러 치마로 사용)을 입고 가야 한다. 또한 여자는 갈대로 만든 깔개에 앉을 때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면 안되고 다리를 앞으로 뻗거나 옆으로 다리를 모아 단정히 앉아야 한다. 교회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항상 대접하고, 환영한다. 예배를 볼 때에 손님을 목사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힌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면 일렬로 줄을 서서 손님과의 악수를 한다.

① 금기

후날로루 군에서는 나무를 함부로 태워서는 안 된다. 나무를 자르거나 돌을 캐지 못하게 되어 있다. 땀감이나 건축 등의 목적 등 특정한 이유가 있을 시 행정적인 절차에 걸쳐 나무를 잘라 사용한다. 후날로루 군에는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이 생겨난 것으로 본다.

마싱가 시에서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일반인들은 산모와 장소를 같이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연세가 많은 분만 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세가 많은 분만 아이를 안을 수 있으며 그 기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8일에서 30일 가량 된다. 또한 여자가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진 후 3,4일 동안은 어떠한 것도 만지지 못한다.

(6) 대중매체

텔레비전은 수도인 마푸토를 중심으로 한 언론이 주도하는데 모잠비크 내에서 STATE-RUN TVM은 유일한 채널 서비스 제공 업체다. 그 외에 포르투갈 채널 업체와 RTP AFRICA, Brazilian-owned TV Miramar 가 널리 시청되고 있다. 하지만 본 리서치 팀이 조사한

후날로루 군와 마싱가 시 와 같이 마푸토에 7시간 정도 거리의 지방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을 갖고 있는 가정 수는 소수이다. 가정 내의 텔레비전의 유무는 부의 척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라디오는 대부분의 모잠비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출처의 역할을 한다. FM 서비스는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 가능하며 BBC 라디오 서비스도 모잠비크 내 청취된다. 1990년 헌법개정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이후 정부의 언론에 대한 통제 및 간섭은 줄어들었으나, 상당수 언론매체가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신사로는 Mozambique News Agency (AIM)(관영)이 있고 방송으로는 Radio Televisao de Mocambique (RTM)(관영)과 Radio Televisao Portuguesa-Africa (RTP-Africa) 가 있다. 주요 일간지로는 관영지인 Noticias와 Diario De Mozambique가 있다. 주요 주간지와 독립지가 모잠비크 내에 존재하지만 이러한 인쇄물들은 모잠비크의 문맹률로 인해 크게 발달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모잠비크에서는 유선 전화의 인구보다 휴대 전화의 인구가 월등히 높다. 휴대전화의 경우 통신회사가 M-Cell 및 Vodacom Mozambique 2가지가 있고 1999년 12,200명이던 가입자 수가 2004년 708,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인구 100명당 3.73명꼴로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며 휴대폰의 가격은 한화 1만원 선이다. 인터넷 의 경우 2004년 인구 1,000명당 7.3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후날로루 군은 2006년도 까지 휴대폰의 전파를 받는 송신탑이 없어 통신 수단에 제한을 받았지만 2007년 M-Cell 통신사가 이 지역에 태양열을 이용한 송신탑을 세워 휴대폰으로 통화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태양열을 이용한 송신탑이기 때문에 일정시간 특히 태양이 떠

있는 시간에만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밤에는 전화통화가 불가능하다. 유선 전화는 국영통신회사(TDM)가 독점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인구 100명당 2.77명 밖에 되지 않는다. 모잠비크 전체적으로 유선 전화를 갖고 있는 건물이나 가정이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모잠비크 정부 자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전화선을 연결할 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림Ⅲ-20 모잠비크 통신회사 간판〉

(7) 관광지 소개

모잠비크 1992년 내전 종식 이후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관광분야는 괄목한 성장을 보였는데 관광과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은 1990년 19,600에서 현재 32,000명으로 확대되었다. 세계관광기구 통계에 따르면 2005년도 모잠비크 관광산업 성장률은 37%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였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95년 15만 명에서 2004년 71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관광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유입금은 8천4백만 불(US\$) (투자승인 기준으로는 5억불)을 기록하였다.

1) 관광지

① 마푸토(Maputo)



〈그림III-21 마푸토 시내 전경〉

모잠비크 남쪽 끝에 위치한 수도 마푸토(Maputo)는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들 사이에 케이프 타운이나 리오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독립전쟁 이후 거의 17년에 걸친 내전으로 수도는 박탈되어 부서진 건물과 더러운 거리로 쇠퇴하여 큰 위기를 맞이 했다. 그럼에도 마푸토의 자연 경관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노력으로 인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마푸토 시내에서 5분 거리에 해변가가 있으며 그곳에서 해수욕과 요트를 즐길 수 있으며 해변 도로를 따라 별장과 카지노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마푸토 시내에는 식민지 시대에 에펠에 의해 건축된 기차역이 있다. 이 곳은 최근 보수공사를 통해 질 좋은 나무와 대리석 장식 등으로 그 웅장함을 자랑한다.

2) 관광시기

모잠비크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6월에서 8월 사이로, 강수량도 적고 기온이 낮아 여행하기 좋은 시기이지만 건기가 끝난 후 8월말에서 9월 사이는 기온이 올라가 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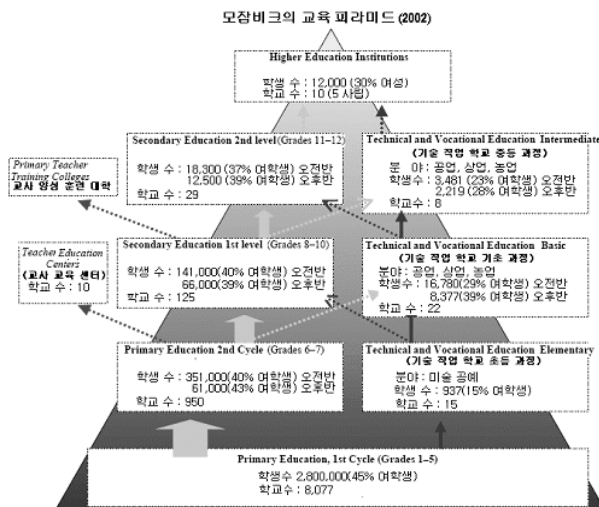
시작하지만 이 시기가 풍부한 야생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반면 새들을 구경하기에 좋은 시기는 한창 우기철인 11월에서 12월 사이가 좋다.

(8) 요약

여느 아프리카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모잠비크 또한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타고난 재능과 열정은 이들이 살아가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모잠비크는 500년 동안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식민지 국가임으로, 모잠비크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포르투갈의 영향이 깊이 뿌리 박혀있다. 에티켓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모잠비크 사람들은 예의를 중요시한다. 오히려 한국에서 지키지 않는 예의범절(특히 식사예절)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그들만의 전통문화 또한 보존 현대문화와 잘 어우러져 있다. 모잠비크의 대중매체와 통신 수단은 제한적인 부분이 많지만 최근 몇 년간 이룬 성과를 바라본다면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그러한 대중매체와 통신수단을 이용한 선교 또한 사용될 전략으로 기대된다.

7. 교육분야

〈표Ⅲ-2 모잠비크의 교육 피라미드〉²²



²² 「Primary School Enrollment and Retention in Mozambique(2005) 120p」 - World Bank

(1) 개요

모잠비크는 지난 30년간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교육 분야에 있어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곳 중에 하나이다. 다른 분야와 함께 교육 분야 또한 1975년 독립을 맞이해서 1980년대까지 급진적인 개혁을 맞이했다. 하지만 내전으로 인하여 17년 동안 국내 사정은 악화 되었고 많은 교육 시설이 파괴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제기구와 여러 NGO단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으로 인해 최근 모잠비크의 교육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 내전이 끝난 1992년도 진학률은 32%에 머물렀지만 2006년도에는 83%까지 올라갔다. 같은 기간 중학교 (8~10학년)로 진학한 학생은 45,000에서 245,000명으로 늘었다. 1992년 이후 초등학교의 수는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교사도 3,500명이 증원되었다. 2004년에는 초등 교육비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가 재정되었다.

양적의 증가로 교육의 기회는 많아졌지만 아직도 학생의 수를 충족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닐뿐더러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질적인 문제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74명을 웃돌고 있으며 그나마 교사의 반은 체계적인 교육법을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70%는 물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며 남녀 구분이 없는 변소를 사용하고 있다. 부족한 교사의 수를 채우기 위해 수업을 아침, 점심, 저녁 3교대로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 진학 대상의 아동 650,000명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다. 특히 여교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여교사의 비율은 23%에 불과하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여자 아이들은 올바른 롤 모델을 찾지 못한 채 공부의 목적을 잃게 되기 쉽다. 또한 여자 아이들에게는 남학생에 비해 학교를 다닐 기회가 적다. 대부분의 여자 아이들은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또한 18%의 여자들은 15세 이전에 결혼하게 된다. 14세에 아동의 3분의 1은 성적인 경험을 하게 되지만 기초적인 성적인 지식이 없어 에이즈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육의 양적 질적 부족으로 인하여서 반 이상의 학생들은 5학년이 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둔다.

학업을 방해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성, 주거지, 부모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업에 영향을 받는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으며 도시보다 시골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부모님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38%의 아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한 반면에 초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아동 중에 진학하지 않는 경우는 4%에 그치고 있다. 2004년에는 남학생의 40%와 여학생의 28%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모잠비크에는 420만의 청소년이 살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에이즈 문제가 심각한 모잠비크의 국가적인 특성 또한 학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국가 전체에 교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그로 인하여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채 가난과 에이즈 탈선의 위험 속에 놓이게 된다.

(2) 현황

〈표 III-3 모잠비크의 교육과정〉

EP1 : Primary Education 1st Cycle (Grade 1-5)
EP2 : Primary Education 2nd Cycle (Grade 6-7)
Secondary Education 1st Cycle (Grade 8-10)
Secondary Education 2nd Cycle (11-12)
모잠비크의 교육 과정

모잠비크의 교육 과정은 표에서와 같이 EP1,2를 통합하여 EPC(Comple)라 지칭하며 한국의 초등학교에 속한다. Secondary Education 1st level는 중학교, Secondary Education 2nd level는 고등학교에 속한다.

1) 마싱가 시의 교육

이남바네도에서 가장 발전 돼있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마싱가이다. 그러한 마싱가의 교육 상황은 열악한 편이다. 그나마 타 지역에 비해 풍족한 이곳에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이 공책과, 연필은 넉넉한 편이다. 학교의 수는 EP1(1~5학년)이 72학교이며 EPC(1~7학년)가 20학교이다. 중학교는 (8~10학년) 마싱가 지역에 하나 밖에 있지 않다. 고등학교 또한 마싱가 지역에 한군데 있지만 정식 학교의 형태가 아닌 중학교의 분교 식으로 되어 있어 마땅한 교실 없이 나무 밑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선생의 수는 EP1이 510명, EP2가 106명, 중, 고등학교 통틀어서 63명의 교사가 있으며 기술학교에 22명의 교사가 있다. 이러한 학교의 수와 교사의 수는 학생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기에 많은 학생들은 진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진학을 하지 못했을 시 길거리를 방황하게 된다. 전반적인 교육열은 높아서 학부모와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 아이들 또한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아이들은 간호사, 농업 기술, 선생님, 기술자, 자동차 정비공 등의 직업을 선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키워 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긍정적인 측면은 6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7학년까지의 등록금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며 학교에서 책, 공책, 연필을 100% 지원을 함으로써 초등학교까지의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의 수업은 1년을 3학기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는데 1월 30일에 학기가 시작 되어서 11월 30일에 학기가 마무리 된다.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녀의 성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여학생의 비율이 44%인 것은 정부가 초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키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마싱가 지역뿐만 아니라 모잠비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 수의 충원이다. 그리고 충원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기르는 것이다. 현재 학교의 부족도 문제이지만 교사의 부족 또한 심각하다. 또한 지방으로 갈수록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교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 후날로루 군의 교육

후날로루 군은 이남바네에서 2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지만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한다. 땅이 오래 전부터 메말랐기 때문에 농작물을 키우는데도 부적합하며 특산물이 나는 것도 아니다. 사회전반의 기본적인 시설이 낙후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의 상황 또는 열악한 상태이다. EP1은 22개 학교에서 7303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EPC는 5개교가 있다. 그리고 학교의 형태가 아닌 11개의 분교(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교실이 한 개만 연다.)가 있다. 현재 후날로루 지역에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며,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하여 땅을 다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 개교 예정이다. 가장 가까운 중학교는 마싱가 지역(비포장 도로를 자동차로 3시간 이동해야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중학교를 진학하는 학생은 재정적인 문제,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극히 드물다. 2006년도에는 80명의 학생이 마싱가로 전학을 갔다. 지역 당국에서는 진학 정도가 낮은 원인을 학교의 부족과 함께 가난이라고 했다. 아이들은 가난한 집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 대신 일을 해야만 한다. 이 곳의 의무 교육 또한 마싱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편이었다. 의무 교육은 정부에서 7학년까지 보장 되어 있지만 집에서 7학년까지 보내지 않는다. 또한 마싱가 시외는 달리 공책, 책, 연필 등의 학용품 또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호노로울루 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한 교육열은 마싱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농업과 가사와 같은 일들을 아이들에게 떠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3) 모잠비크 대학 현황

〈표Ⅲ-4 모잠비크 대학 현황〉

소속	대학 이름	설립년도	위치	학과 수	학생 수
PUBLIC INSTITUTIONS (국립 대학)	Eduardo Mondlane University (UEM)	1962	마푸토	22	6,800
	Pedagogical University (UP)	1985	마푸토 베이라	12 3	1,987
	Highe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SRI)	1986	마푸토	1	234
	Nautical School of Mozambique (ENM)	1991	마푸토	3	0
	Police Academy (ACIPOL)	1999	마푸토	2	128
DENOMINATIONAL INSTITUTIONS (종파 관련 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Mozambique (UCM)	1996	베이라	21	1,035
	Mussa bin Bik University (UMBB)	1998	남플라	X	X
FOR-PROFIT INSTITUTIONS (영리 목적 학교)	Higher Polytechnic and University Institute (ISPU)	1995	마푸토	8	919
	Higher Institute of Sciences and Technology of Mozambique (ISCTEM)	1996	마푸토	7	644
	Institute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ISUTC)	1999	마푸토	3	?
모잠비크 대학 현황(1999)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이룬 뒤 사회주의를 겪고 내전을 겪은 이후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속에 모잠비크는 더욱더 폭 넓은 분야와 교육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현재 모잠비크에는

10개 대학이 있다. 5개의 국립대학과 5개의 사립대학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수도인 마푸토에 집중 되어 있으며 지방 4군데에서 대학 건립을 추진 중이다. 대학의 수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고등 교육을 받는 모잠비크의 인구는 매우 극소수이다.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에 의한 진학률이다. 현재 대학에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위 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포르투갈어를 쓴다. 결국 모잠비크의 고등 교육 제도는 극소수의 엘리트의 편의와 권위를 채워주며 그들의 부를 재생산하며 통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부격차에 의한 차별과 함께 지역별 성별의 차별로는 중부와 북부 사람들은 남부 사람들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매우 적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의 기회가 적다. 대학의 수요가 턱 없이 부족하기에 정부는 NGO단체나 교회에서 짓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 우호적이다.

다음은 모잠비크 유일한 종합대학인 Eduardo Mondlane 대학에 대한 조사이다. Mondlane 대학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은 본 대학이 모잠비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 행정과 구조가 모잠비크의 대학을 대표하고 있으며 모잠비크 내에서 종합대학으로는 유일한 학교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 Mondlane 대학에 대한 리서치를 통해 모잠비크 대학의 현실과 그리고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duardo Mondlane 대학은 식민지 시기에 설립 되었으며 현재의 대학 명칭으로 바뀐 것은 독립 후 일 년 뒤인 1976에 FRELIMO(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위해 투쟁한 무장 단체로써 모잠비크의 독립을 이끌어냈다1964~1974)의 첫 번째 대통령이 Dr. Eduardo Mondlane의 이름을 따서 대학의 이름을 붙였다. 현재 Eduardo Mondlane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의 수는 12000명 가량 되며 1700명의 문과 교수와 2320명의 공과대 교수가 있다. 10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캠퍼스와 Maputo, Inhambane, Beira, Quelimane, Inhaca Island에 위치한 5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Mondlane대학의 입학 경쟁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대학을 나오게 되면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매년 22,000명이 시험을 치고 2,000명이 합격을 한다.

총 재학생 수	남성	6847	9133
	여성	2286	
졸업생 수	남성	692	991
	여성	299	
강사	강사자격	756(209,여성)	1158
	석사	230(57,여성)	
	박사	172(25,여성)	
공과 교수	남성	1629	2367
	여성	738	
Mondlane 대학의 강사와 교수와 학생 수(2006)			

〈표Ⅲ-5 Mondlane 대학의 강사와 교수와 학생 수〉

모잠비크는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곳 교수들의 배경 또한 베트남, 러시아, 북한, 중국, 쿠바, 등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최근에는 프랑스, 미국, 한국

에서 공부를 하고 온다. 하지만 교수의 질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또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교수 채용 또한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짊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공대 보다는 인문 계통에 많이 몰려있다. 그 이유는 사회전반에 과학 기술 기반이 안 닦여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대 계통의 학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서 이공계에 공부를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면 전공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사회과학과 법, 정치, 어문계통의 학과를 선호한다. 본 대학에도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학생들이 누리는 장학 제도는 전교생의 10%가 못 된다. 이곳의 학칙에 의하면 학점제가 없으며 과목을 Pass 또는 Fail로 나뉘는데 전 과목을 Pass하게 되면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금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기숙사비, 식사비, 용돈까지 지급이 된다. 장학금의 기준은 성적 우수자, 가난한 가정, 여성, 나이가 어린 순으로 받게 된다.

학교의 시설은 스웨덴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모잠비크 내에서도 많은 투자와 지원을 받고 있어 새로운 건물을 짓기도 하고 보수공사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제대로 된 화장실이 별로 없으며 변기의 대부분은 고장 나있다.

(4) 요약

모잠비크의 교육은 피라미드형의 교육 인구를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자의 수는 70% 정도를 보일 정도로 매우 높다. 하지만 상위 학년으로 진학할 수록 학교 수의 절대적 부족, 긴 통학 시간의 환경적인 요소와 교육에 대한 낮은 인식과 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피라미드형의 교육 인구를 갖게 된 원인으로는 국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이 관여한다. 현재 EPC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을 하고 많은 지원을 덕택에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 이후부터 교육시설이 도시를 중심으로만 하여 간헐적으로 있기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놓이게 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AIDS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학생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성적인 경험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미성년 혼인을 하게 되고, 가정의 파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결국 여학생들이 사회적 약자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통계적인 자료가 여학생들이 얼마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의 교육 정책 담당자는 교육이 모든 것의 어머니라고 한다. 교육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며 교육 없이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한 국가가 스스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교육은 필수적인 사항인 것이다. 모잠비크 국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 정부 관리들의 부정 부패, 성 의식의 부족으로 인한 AIDS 의 확산, 가난으로 인한 국민 대다수의 궁핍한 생활,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 등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로 모잠비크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교육은 이러한 모잠비크의 현실에 대해 깨우쳐 주며 그 현실에 대해 대안을 준다.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책 또한 도출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다. 국민들의 인식을 깨우치고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서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교육은 모잠비크 국민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 국한된 삶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나은 삶을 제공할 것이다.

8. 종교분야

(1) 개요

모잠비크에는 기독교, 카톨릭, 이슬람, 힌두교, 전통종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모잠비크의 북쪽은 이슬람이 남쪽은 기독교가 강세를 보인다. 카톨릭을 믿는 신도는 나라 전체에 전반적으로 분포한다. 모잠비크 국민의 약 60%가 종교청에서 교파로 등록된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인구 역시 조상신을 믿는 전통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모잠비크 안의 기독교가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연합 감리교회, 여호와의 증인, 자유 감리교회, 하나님의 성회, 로마 천주교, 사도 시험교회, 9사도 교회, 12사도 교회, 아시아 교회, 시오니즘 기독교, 독립교회²³ 등등 많은 수의 교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교단은 각 교단만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잠비크 내의 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단은 정통 복음을 따르고 있지 않다. 흔히 이단으로 알려진 시오니즘 기독교, 사도교회, 여호와 의 증인 등이 그 예이다.

(2) 종교현황

모잠비크에서 처음 교파로 인정된 종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이다.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아시아의 상인들과 탐험가에 의해서 모잠비크로 전파되었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내륙으로 퍼져

²³ 시오니즘 기독교는 순수 시오니즘 기독교의 교회 이외에 여러 독립교회를 만들었다. 글로리오스 교회, 제 7안식일 교회, 베타니 교회, 하나님의 만나 교회 등이 독립교회의 예이다.

나갔다. 16세기에는 포르투갈이 모잠비크를 식민지화 하였고 포르투갈의 국교이었던 카톨릭이 모잠비크 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모잠비크에 식민지를 세운 포르투갈은 국교인 카톨릭 이외의 다른 종교를 박해하였지만 이 후 종교의 자유를 다시 되돌려 주면서 기독교의 많은 교단이 모잠비크에 들어왔다. 스위스 선교 교회, 자유 감리교, 연합 감리교, 나사렛 교회, 연합침례교회 개척교회, 제 7 안식일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교회 등이 세워졌다. 192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 정책이 실시되자 많은 흑인들은 백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 당시, 유대인의 민족주의와 연관 깊은 시오니즘 기독교²⁴는 차별 받는 흑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며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 사회로 전파되었다. 시오니즘 기독교는 그들의 교리를 따르는 독립교회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와 2002년 모잠비크 인구 통계에 따르면 시오니즘 기독교의 교인 수는 약 400만 명, 독립교회의 교인 수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모잠비크 인구 수가 약 2000만 명, 천주교의 전체 신도가 약 350만, 복음교회 250만²⁵, 무슬림이 약 200만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시오니즘 기독교는 상당한 영향력을 모잠비크 내에서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선명의 통일교, 물몬교 등도 모잠비크 내에 있으며 모잠비크와 같이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의 대형 이단교회 소속 선교사들이 모잠비크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1960년대에 모잠비크 정부는 힌두교를 부정적인 종교라 하여 탄압하여 모잠비크 내 힌두교의 교세는 미미하다. 이슬람교는 두 개의 교파를 가지는데 수니파와 시아파이다. 이 두 교파는 특별한 차이와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다.

독립 이후의 헌법은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라고 명시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종교교단이 성장하고 있고 현재 등록된 기독교를 포함한 전체 교단의 수는 773개²⁶이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단이 등록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교단도 많다. 시오니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천주교가 가장 많다.²⁷

이러한 모잠비크 종교 상황은 국가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 조사팀이 조사하였던 마싱가 시, 후날로루 군 지역의 상황과 유사하며 조금 다른 특징들로는 마싱가 시

²⁴ 유대인이 주장하는 시오니즘은 유대인이 다시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는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성향은 백인에게 차별 받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들과 빠르게 결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중 아프리카의 전통 종교가 시오니즘 기독교에 흡수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시오니즘 기독교는 순수 복음주의를 벗어나는 이단의 성격을 갖는 교파로 볼 수 있다.

²⁵ 복음교회는 이단이 아닌 기독교의 교단을 말한다.

²⁶ 2007년 7월 교단 수 공식 집계이다.

²⁷ CIA World fact book 1997년 자료에 의하면 천주교 23.8%, 이슬람 17.8%, 시오니즘 기독교 17.5%, 기타 17.8%, 종교없음 23.1%의 종교 분포를 보인다. 본 리서치 팀과 종교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2002년 종교자료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시오니즘 기독교가 400만여 명의 교인을, 천주교가 350만여 명의 교인을 이슬람이 200만여 명의 교인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7년 인구조사를 통해 모잠비크 국민들의 종교 조사를 시행할 것이지만 2007년 8월 2일 현재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아 보고서에 기재하지 못한다.

지역에는 시오니즘 기독교 이단이 역시 가장 많고 카톨릭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슬람의 영향은 미약하여 이슬람 사원은 마싱가 시 전체에 2개 밖에 없다. 후날로루 군 지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년 밖에 되지 않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통 종교를 믿는 사람의 수가 많고, 조상신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교는 후날로루 군에 존재하지 않는다.²⁸ 기독교간에는 ‘빠르따르날’이라는 교단 연합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며 교단간의 연합을 시도하고 있다.

(3) 종교특징

마추아족이 갖는 종교의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인 것을 감안하여 이들 종교의 특징을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추아족의 종교 중 전통 종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전통종교의 특징을 서술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전통종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마을에 거주하며 영적인 힘과 약초를 통해 아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주술사²⁹다. 많은 모잠비크의 사람들은 주술사의 제사를 통해 치료의 영이 환자에게 임하여 환자를 회복시킨다고 믿는다. 후날로루 군의 경우 인구가 3만여 명이나 되지만 보건소는 4개 밖에 없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이 지역의 주민들은 보건소의 혜택을 받기 쉽지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역과 가까이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전통적 주술사를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 모잠비크 기독교인들 역시 전통 종교를 버리지 않고 이러한 주술사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전통 종교의 형태는 추장을 통해 조상신을 제사하는 형태다. 마싱가 시와 후날로루 군의 마추아족 모두 추장 조상의 기일에 주민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마싱가 시에서는 1월 25일이 추장의 아버지가 죽은 날이어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연다. 축제에 참가한 지역 주민들은 양과 닭을 잡고 감주를 마시며 자신의 문제가 조상신을 통해 하늘의 신께 상납되길 기원한다. 후날로루 군의 주민들도 조상의 기일에 함께 모여 행사를 연다. 추장의 집에 사당을 만들어 놓아 그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소, 염소, 닭 함께 먹는다. 제사를 고한 사람이 그 음식을 먼저 먹고, 참가한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주민들은 전통 문화와 연관되어 있고 이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³⁰ 후날로루 군의 장례는 전통적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²⁸ 후날로루 군 하나님의 성회 교회 지도자와 인터뷰 중

²⁹ 주술사 혹은 코란테이라고 부른다.

³⁰ 후날로루 군 추장과의 인터뷰 중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물로 닦아 옷을 입히고 관에 집어 넣는다. 시신을 묻기 전에 계란 두 개와 풀을 섞어 무덤 속에 집어넣고 장례의 예식을 행하는데 계란을 깨뜨리는 것은 죽은 자의 질병이나 나쁜 기운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때 장례의 예식은 나이가 많은 남자, 월경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여자 등이 진행한다. 장례를 마친 후에는 장례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 물로 손을 씻는다.

또한 후날로루 군 지역은 비가 없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 주민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추장을 찾아가 기우제를 드려달라고 부탁하여 제사를 드리며 비가 오길 소망한다.

(4) 종교 지도자

모잠비크 지방의 종교 지도자는 모잠비크 전체 지도자에 의해서 임명된다. 카톨릭과 감리교의 경우, 마푸토에 있는 국가 전체 교단 지도자에 의해 지방의 교단 지도자가 세워진다. 9사도 교회는 국가 교단 지도자가 3명이라는 것만 다를 뿐 동일한 방법으로 지방의 종교지도자가 세워진다.

이러한 공식적인 지도자 외에도 교회, 성당 내에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들은 4년간 성경 공부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주어진다. 후날로루 군의 경우 마푸토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직접 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수업은 포르투갈어로 진행되므로, 후날로루 군의 낮은 교육 수준을 감안하여 볼 때 교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배우는 사람의 수는 적다. 4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다.

마싱가 시, 후날로루 군 두 지역 모두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나 성당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양성하는 형태로 교육이 이뤄진다. 마푸토에서 종교 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마추아족 중 종교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 종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모잠비크 내에 특별한 종교와 정치의 결합은 발견할 수 없었다. 정부는 종교의 국민 교화 능력을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길 원한다.³¹ 국가는 종교 단체가 행하는 모잠비크 개발 산업을 증

³¹ 정부나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습을 포기하고 모잠비크가

정적으로 생각하며 정부와 종교 단체 간의 특별한 갈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종교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그 것은 자유라고 명시하며 정부는 특정 종교인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종교 청장은 이단의 모잠비크 내 활동은 인지하고 있지만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대응은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여호와의 증인 교단에서 아픈 환자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고, 남자는 군대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들을 인도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하였다.

(6) 기독교 현황

마추아족이 쓰는 언어는 시콰어이며 이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 보급되고 있다. 기독교가 언론 매체를 갖는 것은 자유로워 연합교회(University Church)는 텔레비전 채널을 갖고 있다. 시콰어로 된 기독교 방송은 주일 날 오전에 감리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한국기아대책과 함께한 어린이 개발 사업(Children Development Program)의 사전 조사 중 발견 한 사실 중 하나는 240명의 인터뷰 대상 아이들³² 모두 교회나 성당을 나가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아이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모잠비크의 종교 청장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가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료하기 위해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함께 동행한 선교사님은 조상신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오는 교인의 수도 많다고 하셨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에서 비롯되었는데, 첫째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하는 시오니즘 기독교 이단의 영향이고, 둘째는 성경 보급률이 낮은 데에 그 이유가 있다. 사도교회의 경우 사도만이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읽을 수도 없다. 사도 교회 이외의 다른 교단의 교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는 있지만 성경 보급률이 낮아 성경을 가질 수 없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낮다. 이들의 예배 모습은 찬양에 초점을 맞춘 예배이고, 말씀 선포의 영역은 미약하다.

마추아족은 종교 변화에 대해 개방적이다. 후날로루 군의 경우 복음이 들어온 지 2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18개의 교단이 들어와 성장해 있다. 브라질에서 들어온 한 교단은 예수님의 영화를 주민들에게 틀어주며 많은 후날로루 군의 주민들을 전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쉽게 종교를 받아들이는 대신 전통종교를 여전히 갖고 있거나, 성경을 읽지 못해 믿음의 깊이가 깊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하지만 정부 단독으로는 실행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종교청이 생겼고 종교청은 교회와 연합하여 국민을 개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마사가 종교청장과 인터뷰 중)

³² 모잠비크 남쪽에 위치한 고바(Goba)지역에서 현장 조사이다. 인터뷰한 아이들은 만 6세 이상이다.

지 않다.

(7) 요약

종교의 자유 속에 모잠비크에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전통 종교 등 다양한 종교가 분포한다. 기독교 중 시오니즘 기독교 이단은 모잠비크 내에 가장 많은 교인 수와 영향력을 갖는다. 기독교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교단수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하게 한다는 점과 이단이 모잠비크 내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경이 잘 보급되지 않아 영적 분별력이 약하다는 것이 이단의 확산을 불러 일으킨 요인이다. 또한 교회에 나가면서 조상신을 믿는 이들의 믿음 생활은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개방된 태도로 인해 이들을 전도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없지만 올바르게 양육하고 올바른 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 곳이 모잠비크이다.

모잠비크 내의 선교 활동은 이단과의 영적 싸움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 양육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단이 성경적으로 근거하여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리고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배가 주로 찬양을 하며 춤을 추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말씀 선포되는 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교회 내 성경 공부를 더욱 장려하여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성경공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안의 양육을 통해 이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보급이다.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통해 마추아족 모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기대한다.

IV. 마추아 종족의 선교전략

1. 선교 현황

(1) 선교 역사

16세기 포르투갈이 모잠비크를 식민화하여 천주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을 박해하였다. 그러나 1975년 독립하여 1989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고, 이후 많은 기독교 교단이 모잠비크에 들어오게 되었다. 스위스 선교교회, 자유 감리교회, 연합 감리교회, 나사렛 교회, 연합침례교회, 개혁교회 등이 세워졌고, 이러한 정통교회와 함께 제 7 안식일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시오니스트 교회, 통일교, 물몬교와 같은 이단 교회들도 세워지게 되었다. 현재에도 정부가 종교의 자유와 종교들 사이의 평등을 인정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 사역 규모

26개 나라의 75개 단체가 사역하고 있다.³³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남아공, 브라질, 영국으로 차례로 125명, 113명, 60명, 27명의 사역 선교사를 보내었다. 한국에서도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의 단체에서 봉사단을 보내어 사역하고 있다. 파송 선교사는 8단체에서 32명을 보내어 사역하고 있는데 그 중 모잠비크인이 27명이다. 각 국의 기독교 단체들은 모잠비크의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교육이 가장 대표적이다. 열악한 교육 기반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를 건립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미션스쿨을 세워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최근 한국 기아대책에서는 마니샤 지역에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부지에 기독교 이념의 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3) 선교에 대한 정부의 태도

앞에서 말했듯 모잠비크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에 선교에 대한 핍박은 없다.

³³ Prayer 24365 사이트(<http://www.prayer24365.org/>) 세계 기도 정보- 모잠비크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오히려 기독교 단체들이 사회발전에 유익을 주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있기에 선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본 조사팀의 인터뷰에 지역의 군수와 정부 관리들이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선교 활동이 그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사역적인 필요

먼저 말씀 양육이 필요하다. 본 조사 팀이 5개의 교회를 찾아갔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보지 못했다. 성경이 번역은 되어 있으나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고, 예배도 설교보다는 찬양위주이기에 모잠비크의 성도들에게 말씀의 기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양육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고, 수업 역시 포르투갈어로 진행되나 마싱가, 후날로루의 사람들은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하여 포르투갈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을 뿐 아니라 성경 교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적었다. 이는 중, 고등학교의 부족 등 모잠비크 사회 전반적인 교육 문제와도 깊이 연관 되므로 학교 건립 등 교육문제 개선 필요하다.

(5) 영적인 분위기

500년간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의 통치 아래 있었기에 가톨릭이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1989년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명시하였고, 이 이후 종교 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었다. 모잠비크는 남아공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남아공에서 시작한 시오니스트 교회가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고, 교세가 가장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오니스트 교회는 기독교에 아프리카 전통을 연합한 형태로 많은 아프리카인들에게 공감을 얻어 강력하게 세력을 잡고 있는 상태다. 그 밖에 브라질에서 온 이단 세력인 연합 교회가 강력하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고, 제 7 안식일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의 다양한 이단 교회들이 모잠비크 안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렇게 이단 교회들이 모잠비크에 나타나게 된 것은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모잠비크 인들은 풍부한 종교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리며 춤을 춘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적고 설교 시간도 짧아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모잠비크 인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지 못하는 것은 다양한 이단과 이슬람 등이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틈새가 되었다. 이슬람의 전도 사역은 여느 이슬람처럼 열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무슬림이 모든 상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모잠비크 안에서의 무슬림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모잠비크는 다양한 종교들로

혼잡한 상황이며, 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서지 못하고 있었다.

(6) 기존의 선교전략들

1) 한국 선교회의 선교전략

교회를 세우고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열심이었다. 예수 영화를 상영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영화 상영 후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영접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에 50개의 지역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 가운데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여 지도자로 세웠다. 티라노 지도자 훈련센터라는 학교를 세워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학교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교육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게 하고 말씀 양육을 하고 있어서 강력한 지도자들을 양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 운동을 좋아하는 모잠비크 인들에게 맞추어 태권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고, 컴퓨터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2) 월드비전의 선교전략³⁴

월드비전은 모잠비크 북부 테테 주 앙고니아지구의 두 개의 지역에서 지역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다. 테테 주 앙고니아지구 북부 도무에 지역에 2004년-2019년 총 15년의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혜자 수는 약 40,000명이었다. 보건부분에서는 결핵아동을 중심으로 연 1회 정기건강검진 실시 및 의료비 지원, 보건위원회 지원, 이동진료 지원, 보건용품 및 약품 지원, 5세 미만 아동에게 비타민 A 영양제 지원, 영양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분에서는 학비 및 교복 지원, 학용품 지원, 교사숙소 및 화장실 건축, 세계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에이즈예방차원에서 또래 상담가(Peer Educator), 초등학교 교사, 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하고 초등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 및 종교모임을 통한 에이즈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에이즈 고아를 지원한다. 그리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사업 수행 전 단계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300여 개의 주민자치모임을 주축으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다. 농업 부분에서는 14개의 농업위원회를 조직하여 밭 훈련 및 가축 백신접종 캠페인 실시, 고구마 종자 배분 및 재배기술 전수 등을 한다.

테테 주 앙고니아지구 내 은다올라 지역에서는 2006년-2021년 총 15의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혜자 수는 약 32,000명이었다. 사업 내용은 위의 개발사업과 유사하다. 이

³⁴ 월드비전 사이트(<http://www.worldvision.or.kr>)의 한국의 사업장-해외사업 모잠비크를 참고하였음.

렇게 월드비전은 장기적인 개발사업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었다.

3) 한국기아대책³⁵의 선교전략

어린이 개발 사업(child development program)과 교육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어린이 개발 사업 이하 CDP는 마푸토 주 나마차지구 내 고바 지역에서 24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신체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교육 영역, 신앙적 영역에서 보살피고 있었다. 신체적 영역에서는 부족한 영양섭취, 불결한 위생으로 인해 만연한 질병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검진, 의약품 지급, 영양공급, 보건교육, 부모님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가정의 필요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그 외 방과후 프로그램, 어린이캠프,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라가도록 돕는다. 신앙적 영역에서는 지역사회 교회와 연합하여 성경공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정기가정방문, 어린이캠프, 성탄절 행사 등을 열고 이를 통해 어린이가 성경적 세계관과 자아관을 배우도록 돕는다. CDP는 지역전체를 개발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개발에도 힘쓰고 있었다.

교육 사업으로는 나라송가 지역에 학교를 건축하여 교육 환경을 마련하였고, 마니싸 지역에도 450만평의 부지를 얻어 대학 설립을 진행 중이다. 기아대책은 떡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물질적인 해결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영적인 부분에도 중점을 두어서 기아 봉사단을 파송하여 복음 전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 복음의 접촉 경험

종교의 자유로 복음을 자유로이 전할 수 있고, 기독교 단체에서도 개발 사업 및 선교 활동을 펼치 있어 복음의 접촉 경험과 복음의 접촉 가능성은 높지만 복음이 깊이 심어지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조사 팀이 CDP사업을 도우면서 200명의 아이들에게 인터뷰 한 결과 예수님을 안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열명도 되지 않았다. 또한 현지 성도들 역시 말씀 위에서 있지 않아 복음의 접촉 후에도 꾸준한 양육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였다.

2. 선교 방해요소

(1) 낮은 성경 보급률

³⁵ 기아대책 사이트(<http://www.kfhi.or.kr>)의 가구사업·해외사업을 참고하였음.

모잠비크 전체적으로 성경 보급률이 상당히 낮으며 이는 마추아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리더 정도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성도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성경이 잘 보급되지 못한 이유는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된다. 성도는 성경을 살 돈이 부족하며 성경의 보급 또한 부족한 자원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릇된 교리에 기인한 것인데 이단 교회에 속하는 사도교회는 사도라 불리는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와 더불어 모잠비크 사람들의 성향이 가무를 좋아하여 교회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부르는 것에 초점을 두어 말씀이 경시된 것도 큰 문제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모잠비크 내의 성경 보급률은 낮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 전통신앙의 영향

모잠비크에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신앙들이 있다. 특히 주술사인 코랄데이는 전통적인 의식과 주문, 제사로 민간인의 건강과 가정, 재정 등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코랄데이는 보건소와 연결되어 보건소에서 치료하지 못한 경우 코랄데이에게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코랄데이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전통신앙은 교회와 결합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들어온 시오니즘 기독교와 같은 이단은 전통종교와 강하게 결합하여 교회에서 주술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신앙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회심하여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의식이나 부적 등을 버리지 못하며 신앙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이단

모잠비크는 약 500만명의 이단이 있다. 모잠비크 종교청에는 약 400만 명의 시오니즘 기독교인과 약 100만 명의 독립교회가 등록되어 있고 특히 최근 가장 성장이 활발한 종교가 브라질에서 들어온 유니버설 교회라는 이단이다. 모잠비크 인구 중 개신교가 약 250만 명인데 비해 이단이 약 500만 명을 차지하고 있어 거의 두 배의 차이를 보인다. 이단의 활발한 선교활동과 더불어 이러한 이단 성장의 원인은 모잠비크 사람들의 이단에 대한 인식에서도 기인한다. 모잠비크 사람들은 이단에 대해 복음적인 교회와 구분하거나 분류하지 않고 다같이 개신교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진리와 거짓 진리에 대한 분별없이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위에 언급했던 성경 보급율이 낮은 것과도 연관되어 말씀에 기초

되지 못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단의 활발한 선교활동과 이단에 대한 모잠비크 사람들의 인식은 진리가 흐려지는 원인이 된다.

(4) 종교 지도자 양육의 제한

모잠비크에서 세워지는 종교 지도자의 경우 신학대학이 없기 때문에 정식 신학 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거나 리더로 세워지는 경우가 없다. 신학 대학의 역할은 각 교파의 리더 양육 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수와 그 곳에서 양육 받는 사람 또한 많지 않다. 이는 종교 지도자를 양육하는 교재와 프로그램이 포르투갈어로 이루어지는데 모잠비크 내에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 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중상위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제한을 받는다. 부족한 인원의 충원을 위해 많은 교회는 정식적인 절차에 걸쳐 세워진 리더가 아닌 임시 리더를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종교 지도자들은 온전히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며 교회의 성도들 또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5) 동양인에 대한 두려움

모잠비크뿐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동양인을 보면 중국인으로 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중국인을 매우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인들은 예전부터 이미지가 좋지 않았었는데 실제 중국인들이 현지인은 살해하여 시체를 냉동고에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고 이 여파로 인하여 중국인들은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소문이 돌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그 심각성이 들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 주민들은 동양인들을 마주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동양인들을 두려워하며 경계를 한다. 이는 선교하기 위해 다가갈 동양인 선교사들에게 방해요소로 작용되며 이러한 편견을 깨드리기 위한 친화적인 방안의 간구가 필요하다.

(6) 사회 역기능적 문화

어느 사회에서나 퇴폐적이며 사회 역기능적 문화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모잠비크 내에서도 마약, 윤락, 비행 등 국민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드는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사회에 기초적인 교육 시설과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은 아무런 목적 없이 자신의 육체적 만족과 쾌락을 위해 술을 마시며, 마약을 하며, 성 관계를 맺거나 아예 아

무것도 안 한 채 시간을 보낸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다. 그렇기에 현재의 삶 가운데 그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자신의 쾌락이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상황과 분위기는 짧은 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변화 시켜야 할 것이다.

3. 선교 가능성

(1) 복음의 접촉점

1) 정치

모잠비크의 기본적인 정치 구조의 가장 하위 단위는 10가정 혹은 15가정이 묶인 작은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에 한명의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통해 공동체의 의견들이 위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마추아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리더들을 교회에서 양육하여 10가정 혹은 15가정의 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양육한다면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

2) 경제

모잠비크는 경제의 발전을 위한 원조가 필요한 국가이다. 모잠비크는 연간 2005년 GNP가 310 달러에 그칠 정도로 가난하며 1차, 2차, 3차 산업의 발전이 모두 저조하다. 농업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마추아족의 농업은 자급자족 식 농업형태에 머무르고 있다. 관계용수를 잘 하지 못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 많으며,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배 기술이 떨어진다. 농업의 발달이 없이 충분한 식량을 수확할 수 없고,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 2차, 3차 산업이 발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모잠비크는 농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농업 발전에 관심이 많은 모잠비크에게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은 분명한 복음의 접촉점이다.

3) 생활

① 의료시설

생활 영역 중 가장 큰 문제는 의료시설의 부족이다. 병원의 수가 마싱가 시 전체에 한 개 있었고 후날로루 군에는 없다. 보건소에는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보건소의 수 또한 적어 주민들이 보건소의 혜택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모잠비크에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기 위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종교 청장 역시 이단의 존재는 알지만 아플 때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단의 교단들

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모잠비크 내의 병 치료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의료활동을 통해 많은 선교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② 에이즈

특히 모잠비크는 에이즈의 나라이다. 많은 국민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고, 보건소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 교육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에이즈를 막지는 문구가 곳곳마다 씌어져 있다. 에이즈 퇴치 사업에 대한 교육과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이 시점에서 에이즈 퇴치를 위한 캠페인 사업이 정부의 협조를 얻어 함께 확장된다면 에이즈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알리는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다.

③ 물

모잠비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물을 구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대부분의 미추아 종족인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가 물을 길어 온다. 현재 중국은 물탱크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모잠비크 내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모잠비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4) 사회

① 축구

대부분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모잠비크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축구를 좋아한다. 팀이 머물렀던 티라노 지도자 훈련센터(Tirano center)에는 주말마다 마을 축구 동호회가 와서 마을의 축구팀을 만들어 대회를 나가기 위해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식으로 축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트레이너로서 접근하여 축구 기술을 가르쳐 준다면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② 고아원

모잠비크에는 에이즈로 인해 부모님이 사망하여 고아와 편부모 자녀가 많다. 이들은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친척이나 주변 이웃의 손에 길러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고아원을 세워 고아원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전인적으로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③ 일자리

제공모잠비크에는 일자리가 매우 부족해 각 지역으로 주변의 다른 국가로 일자를 찾으러 떠난 가정들이 많다. 이렇게 가정이 떠난 가정은 아버지 없이 생활을 이어가게 되고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의 가정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본 리서치 팀이 조사한 마싱가와 후날로루 지역에는 아자수와 ‘깎깎이’ 라는 돌이 풍부한 지역인데 기독교 기업이 들어와 아자수를 가공하고 ‘깎깎이’ 돌을 이용하여 시멘트 공장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일자리를 찾아 가정을 떠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5) 문화

① 춤과 노래

모잠비크 사람들은 춤과 노래를 좋아한다. 어디에서나 춤을 추고 노래를 시작하면 누구나 화음을 만들고 춤을 춘다. 교회에서도 특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본 리서치이 방문한 한 교회는 한번 시작된 특송은 이어져서 20여곡의 특송을 예배 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팀이 기타를 치며 특송을 하고 율동을 하자 더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이를 미루어 복음의 접촉점으로 찬양 콘서트를 열거나 교회들과 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위십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

② 관광

모잠비크는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다. 60여개의 종족이 모잠비크에 살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춤과 노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각지에 야생동물들이 산재해 있고 바다를 끼고 있어 긴 해변과 많은 섬들을 가지고 있다. 현지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자원을 개발하여 전통민속 마을, 사파리, 해수욕장, 휴양지 등을 만들어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6) 교육

① 학교 건립

마추아족에게 가장 시급한 필요는 교육분야이다. 초등학교의 수에 비하여 중고등학교의 학교수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마싱가 시의 경우 시 전체에 중고등학교의 수가 한 개뿐이며, 후날로루 군에는 중고등학교가 없다.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지만 중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너무 멀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배움의 길을 포기하고 있다. 모잠비크가 지금의 배고픔을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 교육은 정말 중요한 영역이다.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통해 모잠비크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독교에서 세운 대학교가 없는 것이 아쉬운 상황이다. 미션 스쿨을 통해 학문과 복음이 필요한 마추아족에게 그 필요가 충족될 것이다.

② 여성 교육

모잠비크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 가정의 기본적인 위생교육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치료, 가정교육들에 대한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복음의 접착점이 될 수 있다.

(2) 성공사례: 교회개척 부분

현장 선교사님의 교회개척 성공사례이다. 먼저 미니 버스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장비를 넣고 현인지 사역자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동한 후 그 지역의 센터 교회가 세워질 자리를 찾아 자리를 잡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예수영화를 상영한다. 영화를 상영한 후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러한 집회는 센터교회가 세워질 만한 큰 지역에는 3일정도 이어지게 된다. 집회를 하는 동안 복음의 수용성, 교육 정도, 언어능력(포르투갈어) 등을 살펴 그 지역을 책임질 리더 1,2명을 선교사님께서 택하게 된다. 그 센터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사님은 마을로 들어가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또한 센터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면 센터 교회의 리더가 주변의 마을로 들어가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북쪽의 남폴라, 니아싸, 카보 델가도 지역을 제외한 모잠비크의 모든 지역에 50여개의 교회를 세워 성장시켰다.

4. 선교 전략 제언

(1) 의료선교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모잠비크 또한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AIDS나 말라리아와 같이 심각한 병은 둘째 치고 회충약이 없어서 고통을 받거나, 간단한 위생개념으로도 치유가 가능한 여러 가지 질병들, 타박상에 대한 간단한 치

료로 상처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정도의 간단한 의료 행위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간단한 치료로 눈병을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의료 시설이 없어서 결국에는 눈을 뽑아야 했던 아이의 사정은 전반적인 모잠비크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의료 선교는 전문인 선교 활동으로 의료 선교라는 명목 하에 갈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간단한 위생 관리 교육은 일반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생 관리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얻는 병의 50%는 예방할 수 있다.

(2) 고아원과 유치원

모잠비크에는 부모님을 에이즈나 다른 질병으로 잃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먼 곳으로 직장을 다녀 집에 홀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많다. 이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잘 먹지 못해 영양 상태 또한 좋지 않으며 질병이나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노출 되어 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그들의 육체적, 사회적, 영적 상황을 돌보아 채워주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치료 한번 잘 해주는 식의 일회적인 도움은 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이들의 환경이 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도움을 주었을 때 아이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낼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환경을 변화 시켜주고 동시에 적절한 도움은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 고아원이나 유치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에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그들에게 위생과 영양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핌으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해주면 아이들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 질 것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양육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나 그 지역의 훌륭한 지도자도 거듭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악순환 또한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농업 기술 학교

삶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교육이고 모든 산업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농업이다. 이러한 교육과 농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모잠비크에는 이 기본적인 것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자체적인 생산과 발전은 모잠비크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업 기술 학교를 제시한다. 모잠비크는 현재 가뭄과 부족한 농업 기술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주변에 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다음해에 심

을 씨앗을 따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된다. 농업 기술은 그 나라의 식량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 기술을 가르침으로서 직업이 없는 청년들에게 자신이 할 일을 제공하며 그 배운 기술로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시킬 수 있다.

(4) 순회찬양사역

모잠비크인에게 춤과 노래는 생활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은 춤과 노래를 사랑한다. 모잠비크의 예배 시간은 교인들의 찬양으로 많은 시간이 구성된다. 악기를 사랑하고 음악에 열광하는 이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찬양사역을 통한 선교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실제 본 리서치 팀이 기타를 갖고 다니며 찬양을 할 때 모잠비크 현지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밴드 등을 동원한 찬양 집회를 통해 많은 모잠비크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찬양 집회가 마추아족이 거주하는 이남바네 주 혹은 모잠비크 전체를 순회하며 일어난다면 많은 모잠비크인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5) 제자 훈련

모잠비크 내 선교 중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 이단과의 전쟁이다. 시오니즘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 하고 있는 만큼 모잠비크 인들에게는 이단 교단이 성경의 교리를 순수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 교단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는다. 이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아 성경 말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모잠비크 교회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모잠비크의 기독교에는 많은 이단 교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모잠비크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도 선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마싱가, 후날로루 등 남부 지방에는 이슬람의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시오니즘 기독교에 다니는 교인들에 대한 선교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V. 나가는 말

본 조사팀은 마추아 족을 조사하기 위해 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모잠비크 이남바네주의 마싱가 시와, 후날로루 군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마싱가 시, 후날로루 군 지역이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은 모잠비크 전체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지역은 교육시설의 부족과 교사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 분야의 어려움, 시설과 설비 모든 분야가 취약한 의료 분야, 마실 물과 먹을 식량의 부족으로 영양 상태 또한 좋지 않았으며, 문란한 성문화로 인한 AIDS의 확산과 AIDS에 대한 인식 결여의 문제점 속에 놓여 있다.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 그 지역의 가능성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두 지역 모두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높아서 여건 만 주어진다면 그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지역 내에 단순한 절도 외에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봤을 때 주민들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매우 중요시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마싱가에는 아자수가 많고 호날로루에는 ‘깎깎이’ 라는 석회성분의 광물이 풍부해서 자원을 정책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지역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군수나 정책 관련자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고충을 듣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열정 또한 엿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가능성 속에 본 리서치 팀은 어려움을 극복할 다음 몇 가지 선교 전략을 제시한다. 우선 학교의 설립이다. 특히 농업, 기술학교를 통하여서 이들 삶의 실질적인 필요들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며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의료분야에 대한 선교로 의약품의 보급과 의료 행위와 더불어 AIDS에 대한 교육까지 담당하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을 통한 온전한 복음의 전달과 양육이다.

모잠비크는 많은 기도, 후원, 섬김이 필요한 나라이다. 천연가스가 있어도 개발할 능력이 없고, 논 옆에 강이 흘러도 그 물을 끌어다 쓸 방법을 몰라 가뭄에 고통 받고 있다. 4층 밖에 안 되는 농립부 정부 건물에 불이 났을 때 호수의 수압이 낮아 건물이 다 탈 때까지 그저 바라봐야만 했던 나라이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에이즈에 걸려 고통 속에서 살지만 정작 본인 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 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고 꿈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병원에 가지 못해서 쉽게 치료 할 수 있는 상처를 방치해서 결국에 눈을 뽑아 내야만했던 아이를 만났을 때 이 나라의 참담한 현실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의 국민들은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이단들은 주민들을 미혹케 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독립 교회들로 독자적인 교리로 자신이 진리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북부 지역을 발판으로 해서 이슬람교가 무서운 기세로 내려오고 있다. 한국 교회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도, 후원과, 섬김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가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통로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한다.

〈참고문헌〉

「Education Sector Strategic Plan II (2004)」 Ministry of Education, Mozambique

「Primary School Enrollment and Retention in Mozambique(2005)」 World Bank

「Mozambique : Education Fact Sheet(2005)」 -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iteracy in Mozambique: education for all challenges (2006) - UNESCO

<http://www.foundation-partnership.org/pubs/mozambique/>